

<2020 청년내일채움공제 더불어 수기 공모전> 수상작

청년과 기업이 더불어 성장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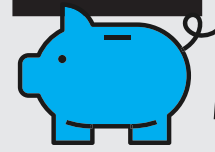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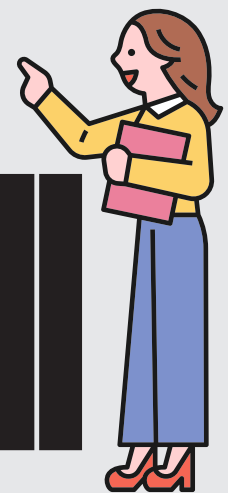


# 청년 내일



# 채움

# 공제



청년과 기업의 든든한 내일을 함께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020 청년내일채움공제 더불어 수기 공모전 수상작

고용노동부

<2020 청년내일채움공제 더불어 수기 공모전> 수상작



청년과 기업이 더불어 성장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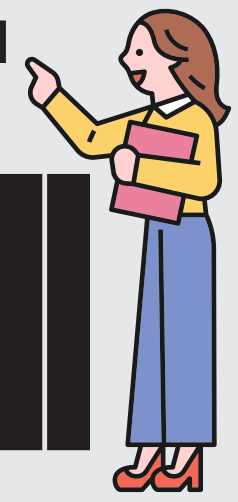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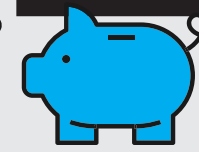
청년  
내일



채움



공제



# Contents

## 01

### 청년내일 채움공제 안내

청년내일채움공제란?	6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7

## 02

### 청년내일 채움공제 우수 사례

<b>기업 부문</b>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인재로부터 나온다 - 정성한 ((주)에스앤에스 테크놀로지)	11
젊은 친구가 잘 해낼 수 있겠어? - 조주현 ((주)초렘에프앤비)	13
젊은 직원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지않는 지방기업의 토대가 됨 - 정제우 ((주)농업회사법인 에르코스)	15
풀 순환의 시작 '청년내일채움공제'- 김봉섭 ((주)디엠바이오)	17
청년들이 늘어남으로 인한 기업의 좋은변화 - 남사라 ((주)원세미콘)	19
'요즘 세대'와 '기성세대', 어쩌면 좁힐 수 있는 그 간극에 대하여 - 박슬기 (일진디스플레이)	21
같은 곳을 바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윤현철 (정철어학원신방용곡학원)	23
인재 육성 및 근로문화 개선 시킨 청년내일채움공제 - 박지원 ((주)태양건업)	25
청년기업의 꿈과 희망을 실현시켜준 청년내일채움공제 - 안동하 (플라월)	27
꿈꾸는 '청년', 후니드에서 '내일'을 '채움'하다! - 조성준 ((주)후니드)	29
한 인재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 황윤정 ((주)아이월)	31
이건 너를 위한 스페셜 청년내일채움제도 - 박준수 ((주)이너스커뮤니티)	33
직원을 중시하는 코리아리서치 인터내셔널의 진심 - 권다원 ((주)코리아리서치 인터내셔널)	35
뿌리 기업 청년 고용의 꽃 청내공 - 손종훈 (에스지오)	37



### 근로자 부문

나의 청년, 나의 내일 - 김수정 (초원식품)	41
울지 말고 천천히 말해보요. 내일채움...없어요? - 김선혁 ((주)위킵)	43
경단녀에게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배정빈 ((주)엠제이락)	45
내일이 없어 보일 때 내일을 선물 받았습니다 - 우선식 (농업회사법인 (주)아드리코)	47
오늘이라는 기적 - 최정인 ((주)스카이뱅크)	49
내게 '내일'이란 기회를 주어 고맙습니다 - 장진주 (유한회사 소미노)	51
역마살도 끊어낸 청년내일채움공제 - 정태연 (동래병원)	53
청년내일채움공제 더불어 수기 공모전 - 이봉로 (브로드밴드 아이디씨)	55
나를 한 발짝 더 성장하게 해준 청년내일채움공제 - 윤소희 (심리상담연구소 행복나무)	57
'청년내일채움공제'로 찾아온 긍정적인 삶의 변화들 - 김태운 (나노텍세라믹스)	59
내 삶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준 청년내일채움공제 - 홍찬영 (무한테크 잉크프로컴)	61
희색빛 정답 (부제: 청년이 내일을 채우는 방법) - 최시은 ((주)유씨웨어)	63
미래가 든든하게 채워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 임지연 ((주)지앤엠)	65
나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 - 이재원 ((주)에이플러스알에프)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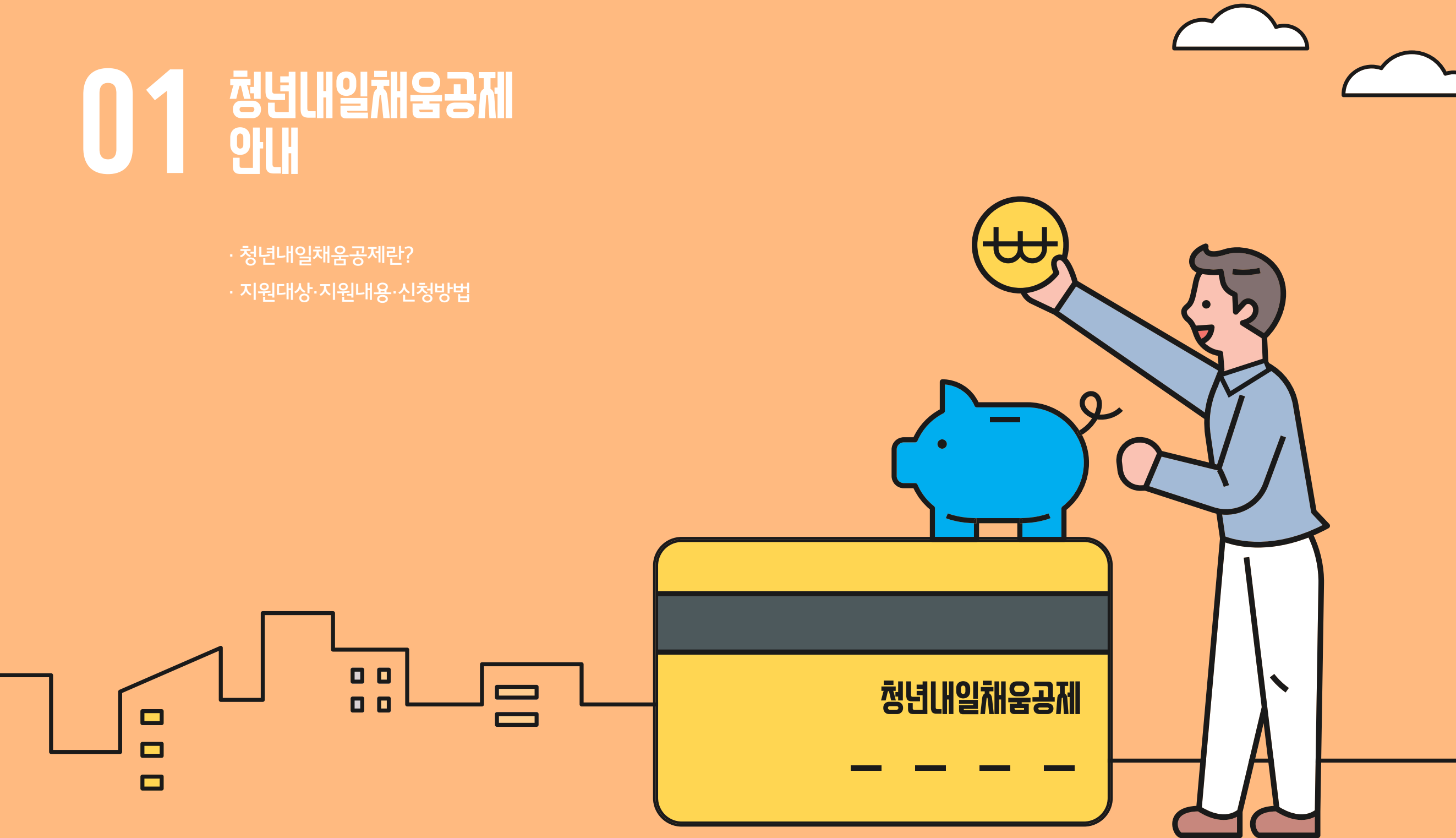
## 03

###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안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란?	69
전국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연락처	71

# 01 청년내일채움공제 안내

-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청년내일채움공제 안내

## 청년 내일채움 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 유도 및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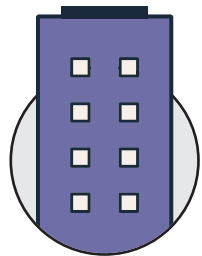
\* 청년·기업·정부 공동 적립

## 지원 대상



###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 제외)
- 다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 지원 내용

(2020년 기준)



청년 300만원+정부 900만원+기업 400만원

▶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α



청년 600만원+정부 1,800만원+기업 600만원

▶ 3년 후 만기공제금 3,000만원+α

## 신청 방법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 ([www.work.go.kr/youngtomorrow](http://www.work.go.kr/youngtomorrow)) 참여신청 ▶ 승인 및 선발 (운영기관) ▶ 청약신청 ([www.sbcplan.or.kr](http://www.sbcplan.or.kr))

## 신청 기간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 ([www.sbcplan.or.kr](http://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02 청년내일채움공제 우수 사례

## 기업 부문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인재로부터 나온다

- 정성한 ((주)에스앤에스 테크놀로지)

젊은 친구가 잘 해낼 수 있겠어?

- 조주현 ((주)초램에프앤비)

젊은 직원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지않는 지방기업의 토대가 됨

- 정제우 ((주)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

善 순환의 시작 '청년내일채움공제'

- 김봉섭 ((주)디엠바이오)

청년들이 늘어남으로 인한 기업의 좋은변화

- 남사라 ((주)원세미콘)

'요즘 세대'와 '기성세대', 어쩌면 좁힐 수 있는 그 간극에 대하여

- 박슬기 (일진디스플레이)

같은 곳을 바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윤현철 (정철어학원신방용곡학원)

인재 육성 및 근로문화 개선시킨 청년내일채움공제

- 박지원 ((주)태양건설)

청년기업의 꿈과 희망을 실현시켜준 청년내일채움공제

- 안동하 (플라월)

꿈꾸는 '청년', 후니드에서 '내일'을 '채움'하다!

- 조성준 ((주)후니드)

한 인재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 황윤정 ((주)아이월)

이건 너를 위한 스페셜 청년내일채움제도

- 박준수 ((주)이너스커뮤니티)

직원을 중시하는 코리아리서치 인터내셔널의 진심

- 권다원 ((주)코리아리서치 인터내셔널)

뿌리 기업 청년 고용의 꽃 청내공

- 손종훈 (에스지오)



## 기업부문(대상)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인재로부터 나온다

정성한 ((주)에스앤에스 테크놀로지)

## “나는 20살 대학생 때, 투자를 받아 창업한 청년 창업가다”

나는 대학생 때, 생계와 학업을 병행하기 위해 교수님과 친구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창업한 청년 창업가다. 에스앤에스 테크놀로지(주)는 2012년 설립한 플라스틱 성형사출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주로 스마트폰 액세서리 디자인, 금형설계, 사출 성형, 후가공(인쇄&전사) 및 포장까지 전 공정을 ONE-STOP으로 끝낼 수 있는 OEM 공장으로, 국내에 몇 안 되는 과점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중국산의 저가 제품을 제외한 국내의 범용 스마트폰 액세서리의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경기 하락과 저가의 중국 제품의 다량 유입으로 인한 치열한 경쟁 속에 있는 다소 겉보기와 달리 내실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그저 그런 중소기업이다. 지금도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경쟁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사업 초창기에는 작업지시, 생산 및 출하, 재고관리 등이 모두 수기를 통해 관리되는 등 비효율적인 공장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모든 중소기업의 고민이겠지만, 직원들의 잦은 퇴사와 담당자 변경은 많은 피로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일반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들과 달리, 각 업무에 대체로 1명이 여러 가지 업무를 겸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피고용자는 업무의 범위와 강도가 보수에 비해 높다고 생각하게 되고 조금만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면 이직을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된다. 여기에서 악순환의 구조가 시작된다.

## “중소기업 경쟁력의 대부분은 사람으로부터 나온다고 믿는다”

각 업무의 담당자 부재와 잦은 변경으로 기업은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깊이가 떨어지고, 그 결과, 경쟁력을 잃게 된다. 하지만 근 10여 년간 일선에서 보아온 중소기업의 대다수 고용주는 이러한 점들이 기업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특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플랫폼, 지식기반, IT 기반 등) 중소기업과, 규모 대비 상당한 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강소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중소기업은 ‘사람이 곧 전부다.’라고 생각한다. 본인 또한 현재까지 늘 생각하고 있는 부분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대부분은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믿어 의심치 아니한다.

그렇다면, 유능한 인재를 키워 회사에서 오랫동안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그건 쉽게 말해 ‘보상’이다. 보상은 두 가지가 있다. 우선 첫 번째는 당연히 물리적인 보상. 즉, ‘급여’다. 두 번째는 심리적인 보상. 즉, ‘성취감’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경쟁력이 심화하여 있는 대다수 중소기업에 있는 직원들은 물리적인 보상에 만족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은 수익성도 저조할 것이기 때문에, 더 대우를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현실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매우 혁신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비용 일부를 내야 하는 부담과 적잖은 기간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활용되고 있지는 못하다. 또한, 나를 포함한 일반적인 중소기업의 대표들은 당장 하루하루, 다음 달에 대한 걱정, 개인사에 대한 걱정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미래설계를 일일이 하지 못한다. 특히 젊은 청년들은 사회 초년생으로서, 많은 기대감과 동시에 걱정으로 가득할 시기이다. 그런 고민가득한 사회 초년생인 그들에게 마음을 다잡고, 다독여주는 작지만 큰 위로가 되는 것이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아닐까 싶다.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직원들의 성취감을 높여주는 제도”

처음, 이 제도에 대한 공문을 받아보았을 때 믿지 않았고, 그저 광고성 메일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메일 발송처, 정부 부처가 나서서 홍보하는 이 제도를 자세히 살펴보니, 너무나도 혁신적인 제도가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한 편으로는 내심 걱정도 있었다. 왜냐하면, 이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기존 직원들의 현실적인 임금 역전현상에 대한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나는 이 제도를 이해하고 나서 들어오는 모든 신입 청년 직원들에게 이 제도를 홍보하고, 제안하기 시작했다. 2020년 7월 현재 우리 회사는 총 3명의 수급 완료가 된 청년들이 현재에도 재직하고 있고, 당장 다음 달에 추가로 한 명이 혜택을 받는다. 아이러니하게도, 다음 달에 수급하게 될 직원은 내가 2년 전에 각고의 설득 끝에 이 제도를 받아들인 직원이다. 대표와 1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막내(현재는 아니지만) 직원은 처음에는 이 제도에 대한 믿음이 없었고, 또한 2년이라는 시간을 회사에서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앞섰다고 한다. 우리 회사는 대표와 젊은 직원들이 함께 주기적으로 간담회도 하고 ‘개인 목표&회사 내 목표’에 대해 서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곤 한다.

얼마 전, 이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수혜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아 들떠있는 모습에 나 또한, 덩달아 같이 기분이 좋아지게 되었으며 내년에 현재 하고 있는 업무보다 한 차원 높은 강도의 업무를 맡아달라고 부탁했는데, 잠시 고민을 하던 직원은 흔쾌히, 마음의 부담은 있지만 잘 해내어 보이겠다며 웃으며 이야기해주어 마음이 매우 뿌듯했다. 여기에서 나는 두 번째 보상인 ‘성취감’을 느낀 직원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지난달 입사한 다른 직원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해서 또 새로운 2년을 준비해 나아가고 있다. 처음에는 오히려 기존 직원들의 역차별, 사기 저하에 대해 걱정을 했지만 지금 우리 회사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혜택을 받고 있는 청년 직원들이 하나하나 일당백이 되어가고 있음을 대표인 내가 절실히 느끼고 있고, 이제 우리 회사의 최고의 강점은 나와 함께 일을 하는 직원들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 “청년 인재들이 회사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나비효과를 일으키다”

우리는 공고롭게도 제도를 도입한 2017년부터 매출 및 수익성이 점점 더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이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익성이 개선되다 보니, 기존 직원들에게 일반 ‘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을 해줄 수 있는 여유도 생기게 되었다. 청년 인재들이 우리 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나비효과가 이렇게 발생한 것이다. 이 나비효과를 바탕으로 기존 직원들에게도 더 나은 작업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줄 수 있는 동력이 생기게 되었고, 마침내 우리는 목표를 수립하고, 대표보다 젊은 직원들이 먼저 나서서 선제로 회사가 운영되는 그러한 상황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제 우리 회사는 대표가 큰 방향성을 제시하면, 함께하는 직원들이 그 방향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아간다. 그저 그런 중소기업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으로 되어가는 과정을 몸소 겪고 있으니, 실로 놀랍고 가슴 벅찬 일이 아니던가. 이것이야말로 #더불어 #함께 상생하는 #기업역량 강화 #근로전문성 강화 아니겠는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경기 침체, 소비심리 위축 등 다양한 외부적 위협요인이 포진하고 있으며, 내부적인 요인이 아닌 외부적인 요인의 위기와 맞서야 할 시점이 다가왔다. 하지만 나는 전혀 두렵지가 않다. 왜냐하면, 나와 더불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열정과 역량이 충분한 나의 동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나는 오늘도 행복하다.

**기업부문(최우수상)**

# 젊은 친구가 잘 해낼 수 있겠어?

조주현 ((주)초램에프앤비)

## “젊은 친구”가 잘 해낼 수 있겠어?

축산 가공 공장, 그것도 외국인 근로자나 육가공에 빠를 문은 가공기술자들도 쉽게 지원하지 않는 ‘양고기’ 전문 가공 회사에 20대 후반의 청년이라니! 면접을 담당하는 작은 회사의 책임자로서는 이미 진즉에 포기했던 귀한 조건의 젊은 지원자였습니다. 회사의 핵심이어야 할 10여 명 남짓의 생산부서 평균연령은 이미 60대를 넘어선 지 오래고, 힘들고 고되지만,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일종의 자부심도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젊은 축산 가공 기술자가 보이지 않는 축산 시장의 문제는 비단 우리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축산산업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심각한 현상입니다. 높은 이직률과 기술직 노령화의 이중고 속에서 이제나저제나 기다려온 젊은 청년 지원자였지만, 막상 실제로 지원한 친구를 만나고 나니 먼저 든 생각은 ‘얼마나 버텨줄까?’하는 비관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양고기를 깎고 다듬어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가공 기술들은 골절기, 욱절기, 나이프 등의 도구를 다루어야 하니 꽤 위험한 일이고, 근로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2~3년 동안의 지루하고 힘든 배움의 시간이 필요한 일이기요. 보통 축산 시장의 ‘젊은’ 인력이라는 40대도 입사 며칠 만에 출근하지 않고 문자로 퇴직 의사를 밝히고 하는 일이 회사로서는 너무나 일상화된 어려움이었습니다. 회사와 직원 모두를 위해 오직 정규직 직원만 뽑아 운영하겠다는 회사의 신념 속에, 작은 회사의 신입사원 연봉 조정에는 운영상 한계가 있었고, 이제 일을 시작해보는 청년에게 큰 연봉을 보장하는 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하다”

2019년 작년 한 해는 HACCP 공장을 신축 이전하여 회사의 새로운 출발과 함께 의욕 넘치는 회사 분위기를 만들고자 노력했던 한 해였습니다. 하드웨어는 갖추었으나 회사의 미래를 함께할 젊은 인력이라는 소프트웨어가 꼭 필요했던 시기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알게 되었고, 반신반의의 심정으로 공고문에 내용을 삽입하여 지원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힘들고 고된 일이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축산 산업. 또 그중 이제 걸음마 수준인 양고기 분야를 개척하고자 하는 회사의 진심을 알아 줄 청년이 어디엔가는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이제는 현실화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거죠. 그때 만난 청년이 30대조차 없던 생산직을 지원한 27살의 L 군이었습니다. 입대가 조금 늦어 군대를 갖 제대한 L 군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고, 이를 통해 새로운 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전해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회사 역시 이에 화답하듯 앞장서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회사의 미래를 지어나가듯, L 군의 배움과 회사 생활을 도왔습니다. 성실하고 씩씩한 성격에 함께 일하는 30년 차이의 선임 기술자들에게도 스스로없이 다가서는 L 군은, 이미 모두에게 수습 신입사원이 아니라, 본인들의 든든한 아들이자 귀여운 손자나 다름없이 여겨졌습니다.무엇보다 큰 변화는 생산성이나 이익률이 아니라, 바로 청년이 함께 하는 회사 그 자체입니다. 회사에는 시끌시끌한 생기가 넘치고, 회식의 여유조차 없던 근로자들 사이의 유대감도 단 한 청년의 입사로 인해 더욱 단단해져 갔습니다.

## “청년에게 안도감과 자부심, 든든함을 준 청년내일채움공제”

축산 가공 회사의 일이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굉장히 고되고 어려운 일입니다. 원육을 자르고 뼈를 바르는 일은 그 보람을 느낄 새도 없을 만큼 위험과 긴장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한 번 배운 기술들은 영원히 근로자의 것이 됩니다. 간혹 이 일에 도전했다가 금세 포기했던 젊은이들은 그 어려움은 간과하고, 기술만 배워나가고자 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회사 또한 반성하게 됩니다. 더 좋은 환경과 임금으로 청년의 배움과 미래를 도와야 할 회사들은 경영의 어려움과 시장 상황만 탓하며, 더욱더 좋지 않은 환경의 악순환을 내버려 둔 것은 아닌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보기에는 온전히 청년근로자를 위한 제도이지만, 어찌 보면 실상 우리 회사를 위한 제도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랑한 청년 L 군이 회사의 분위기를 바꾸며 열심히 꿈을 키울 수 있었던 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국가가 자신의 미래를 더불어 돕고 있다는 안도감, 회사가 자신을 회사의 미래로 인정하고 있다는 자부심, 청년 자신의 힘으로 미래의 경제성을 스스로 갖출 수 있다는 든든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청년 L 군은 지금은 어릴 때부터 홀로 본인을 길러준 지방에 계신 할아버지의 병환이 깊어져 잠시 회사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L 군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당연하지만 아쉽게도 멈추게 되었지요. 그러나 앞서 회사가 겪었던 수많은 다른 청년 근로자와의 이별과는 전혀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회사도, 이제는 어엿한 축산 기술자가 된 L 군도, 곧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의심하지 않았으니까요. 그 후 입사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시작한 또 다른 청년근로자 S 군은 이제 또 다른 회사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돌아올 L 군과 함께 든든한 회사의 미래가 되어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함께한 1년, 또, 새로운 청년과 함께할 내일이 있어, 이제 밝고 자신 있는 목소리로 모두에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아니죠! ‘젊은 친구’라서 잘 해낼 수 있는거예요!”





기업부문(우수상)

# 젊은 직원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지 않는 지방기업의 토대가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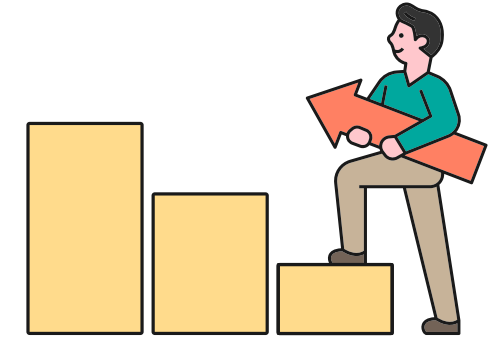
정제우 ((주)농업법인 에르코스)

### “제조회사의 한계에 부딪히다”

당사는 2014년에 대전에 설립된 이유식 식품제조회사이고, 설립 당시 5명의 직원으로 생산과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40대 이상의 근로자들은 채용하면 비교적 잘 다녔으나 젊은 직원들은 지저분한 제조회사 분위기와 잦은 퇴사로 보통 2~3개월이면 못 버티고 이직하는 회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당사는 이유식을 제조해서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젊은 층의 마케팅 인력과 디자인 인력, 행정 처리를 담당할 사무인력들이 절실히 필요했는데, 기업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우수인력들의 퇴사가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인력수급을 위해 수도권 이전을 고려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고, 젊은 층에 급여를 더 주거나 복리후생에 신경 써야 할 만큼 회사의 재정이 넉넉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 “내일채움공제를 알게되다”

이런 직원들의 잦은 퇴사 입사를 반복하면서 회사를 받쳐주는 제대로 인력들이 없어 솔직하게 계속 사업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제조 중소기업은 인터넷 주문 생산기반이기 때문에, 채용이 어려워지면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 있습니다. 젊은 층을 잡으려면 급여나 복리후생을 높여야 하는데, 이러다 보면 시설투자가 되지 않아 신규 채용을 못 하는, 결과적으로 악순환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민을 하던 중 우연히 2017년경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신규 채용 형은 회사의 부담 없이 정규직으로만 채용하면 근로자 본인이 300만 원을 2년 동안 125,000원씩 적립하면 국가에서 직원에게 2년 동안 1,300만 원을 적립해 주니 아주 좋은 제도라 생각되어 신규직원들은 수습 및 인턴 기간 없이 가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후 회사가 발전하기 시작하다”

당사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누적 가입자가 2020년 6월 현재 재직형 1명, 2년형 가입자 57명, 3년형 12명으로 만 34세 이하 청년들 대부분(92%)이 가입한 상황입니다. 우연한 일치인지 모르지만, 당사는 현재, 2017년부터 내일채움공제를 시작하면서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고용증가의 3중 세트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내일채움공제를 시작하기 전, 2016년 12월 말에 고용보험 34명 매출액 47억 당기순이익 3억3천만 원이었는데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인원 115명으로 338% 증대 매출액 148억 314% 증대 당기순이익 14억9천만 원으로 451% 증대로 3년 만에 단순히 고용과 매출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생산성까지 향상된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회사도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한 청년 직원들의 활약으로 각종 인증을 획득하고 고용노동부장관상, 여성가족부장관상 등의 수상으로 하나하나 회사다운 회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19로 기업환경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당사는 여러 청년층의 활약으로 2020년 6월 현재 전년 대비 고용인원도 127명, 매출도 전년 같은 달보다 10% 늘어났습니다.

### “국가와 회사, 청년이 모두 승리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회사는 안정적인 인력수급, 청년은 목돈 마련의 혜택이 있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 생각이지만 그런 혜택을 직접 지원하는 국가에 미안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근로를 토대로 회사가 돈을 벌고 회사가 돈을 벌기 때문에 국세와 지방세가 증가하며 국가 재정에도 이바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만 혹은 기업만 사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잘 되게 하여 결과적으로 국가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을 꺼리는 청년과 수도권으로만 인재가 몰리는 현실에서 지방기업과 중소기업에 동기부여가 되는 제도가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입니다. 당사는 청년내일채움공제로 생산성 생산성이 증대되어 고용과 세금도 자연스럽게 증가하여 2021년에는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당사는 이런 제도를 지원해준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감사하고 있으며, 많은 중소기업이 인재 유치에 어려운 상황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업부문(우수상)

# 善 순환의 시작 ‘청년내일채움공제’

김봉섭 ((주)디엠바이오)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주나요?” ‘디엠바이오’ 인사팀에서 근무하면서 신입사원 채용 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하다 보면 구직 청년들이 나라에서 제공하는 여러 혜택에 대해 실무자 못지않게 잘 알고 있으며, 그 누구보다 관심이 많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본인부담금 600만 원 납부로 만기 후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큰 혜택입니다. 사회 초년생으로서 가입 자체만으로 경제적 자립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기에 매력도 측면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평생직장’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사라져 가면서 좋은 인재를 놓치거나 빼앗기지 않기 위해 기업로서는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고민과 노력 중 2019년부터 회사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한 것이 과히 ‘신의 한 수’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디엠바이오’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큰 전환점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도입으로 직원들의 퇴직률이 감소하다”

‘디엠바이오’는 2015년 인천 송도에 설립된 신생기업입니다. 신생기업의 특성상, 직원들의 근로 안정화 부분에서 있어서 초창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근 3개년인 2018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퇴직률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하기 전과 후로 큰 변화를 보입니다. 2018년 17%, 2019년 10%, 2020년 현재 기준 3%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하면서부터 퇴직률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것을 몸소 체감하였습니다. 실제로, ‘디엠바이오’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한 신입사원 43명 중 퇴사자는 단 1명이기 때문입니다. 퇴직에 따른 총원 채용의 빈도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중도 이탈하는 신입사원의 수가 급감하면서 ‘디엠바이오’에 긍정적인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신입사원 한 명이 자기 몫을 해나가게끔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기업 측면에서 큰 비용 투자와 더불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가르친 신입사원이 퇴사하게 된다면 기업에서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퇴직률이 높았을 시기에는 회사 자체적으로 이에 대한 고민이 매우 많았습니다. 일할 수 있도록 투자한 직원이 퇴사하면 다시 채용, 교육, 또 퇴사, 채용, 교육... 악순환의 반복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체적인 퇴직률이 감소하면서 신입사원의 근속 기간 역시 늘어났고, 그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이 꾸준히 자기 자리를 지켜 주었습니다. 업무의 효율과 더불어 제품생산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 “회사에 선순환 바람이 불기 시작하다”

제품의 품질이 향상되고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그 바탕으로 조금 더 직원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점심만 제공하던 회사에서 저녁까지 제공하게 되면서 근로자들의 만족도는 높아졌고, 업무능률 및 근로환경을 향상하기 위해 환경개선을 시작하였습니다. 최근 스마트오피스, 웰컴 센터를 구축하였고 사내식당을 개축하였으며 직원들의 휴식을 위한 사내 Cafe까지 준비 중입니다. 이 모든 활동은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한 투자개념으로, 조금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회사의 노력이 선순환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또한,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통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직급 제도를 폐지하고 “00님” 호칭 문화를 제도화시키는 등 직원이 행복한 회사를 만들기 위해 조직 문화 혁신 활동도 지속해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나아가 지역발전 공헌에 앞장서게 된 디엠바이오”

제도적 지원을 바탕으로 큰 도움을 받은 ‘디엠바이오’는 지역발전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마저 갖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인재 채용에 그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습니다. 인근 대학의 약대 실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대학과 기업의 인프라 구축에 힘썼으며, 지역 고등학교의 인재추천을 통해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9년 12월 기준 168명에서 2020년 6월 기준 193명으로 30명가량의 고용창출을 실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 및 수출산업화를 위한 업무 협약, 바이오산업 육성 및 협력 확대에 관한 협약 등 국가의 미래 산업 원동력이자 인천지역의 전략산업인 바이오 산업육성을 위하여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단기적으로 직원을 2~3년 강제로 기업에 근속하게 하기 위한 족쇄의 개념보다는 정부가 기업과 근로자에게 지원하고, 그 바탕으로 기업이 직원에게 투자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선순환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적 지원에 힘입어, 회사발전과 더불어 직원들의 발전,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디엠바이오’가 되겠습니다.

기업부문(입상)

# 청년들이 늘어남으로 인한 기업의 좋은 변화

남사라 ((주)원세미콘)

## “직원들의 잦은 퇴사로 인한 업무의 어려움”

반도체 제조업이라는 업종 특성상 근로자의 99%가 남자였으며 내근직이었지만, 팀장급들이었기에 하루 대부분을 현장에서 근로하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현장에서 급하게 자료를 요청하거나, 서포터스를 해주어야 하는 상황에도 사무실 직원이 없으니 바로바로 요청사항을 들어줄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업무에도 많은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점을 개선해보려 사무실 내근직 인원을 채용하기로 하였고, 공고를 올리고 이력서를 보니 95%가 여성 지원자들이었습니다. 면접을 보고 몇몇 분들이 입사하였으나 남자들만 있는 회사에 적응하지 못하고 머지않아 퇴사를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로 바뀌낸 회사의 변화”

그러던 중 우연히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고, 마침 이 제도에 적합한 인재가 나타나 채용 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직원이 말하길 처음 입사하였을 때 업무 중 질문사항이 생겼거나, 점심을 먹거나, 회식을 할 때 큰 이슈사항은 없었지만, 혼자 성별이 다르다는 점이 많이 어색하고 불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어색함과 불편함은 어느 회사나 초기에 똑같이 겪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며 버텼고, 무엇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혜택을 포기할 수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목표라는 것이 생겼고 어리다면 어린 나이에 꽤 큰돈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이 뿌듯하다며, 특별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 나라의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 직원의 시간은 무탈하게 흘러 곧 입사 2주년을 마주할 예정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으로 인하여 많은 청년이 입사하였고, 청년들에게 느껴지는 젊음의 패기 그리고 신입의 새로움이 더해지니 기존에 멈춰있던 업무의 틀에 변화가 왔고 더욱 견고하고 효율성 있는 업무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일어나는 돌발적인 일들까지도 빠르게 해결해 주다 보니 종종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의 문제점들도 점차 개선되었으며, 자신의 업무를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개개인의 업무능률이 오르고, 상사들의 칭찬을 받으니 이에 힘입어 더욱 노력하는 직원들이 되었습니다.

## “직원복지라는 것이 번거롭고 힘든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다”

청년들의 채용이 늘어나며 기업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는데, 그중 가장 큰 변화는 복지였습니다.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덜어주려 빈 공간이었던 사무실을 이용해 탁구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직원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탁구대로 모여들었고, 이를 본 대표님의 권유로 '제1회 탁구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주최는 각 팀에서 돌아가며 준비하였고, 팀 전으로 진행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직원들끼리 화합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주최하는 팀 역시 간식, 대회 규칙, 선물 등등 모여서 준비를 하며 이것저것 대화를 하다 보니 서로가 원하는 의도를 빠르게 파악하고 성향을 알아가는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깨달은 점은 기업이 직원들에게 주는 복지라는 것이 번거롭고 힘든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직원복지라는 것은 그저 직원과 기업이 조금이나마 웃을 수 있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것” 이것이 직원복지라는 것을 깨달았고, 앞으로도 우리 기업은 직원들과 함께 웃으며 서로에게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회사로 성장할 것입니다.



기업부문(입상)

# ‘요즘세대’와 ‘기성세대’, 어쩌면 좁힐 수 있는 그 간극에 대하여

박슬기 (일진디스플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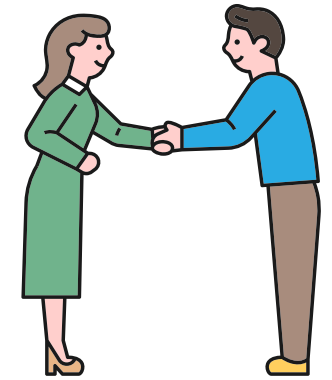
### “기업의 채용 담당자로서 느꼈던 갈등”

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최악의 취업난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신입사원의 조기 퇴사율은 쉽게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수많은 전형의 문을 열고 당당히 입사한 청년이 스스로 문을 닫고 나가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굳이 뉴스 기사까지 찾아보지 않아도 우리 주변의 누군가는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일진디스플레이의 채용담당자로서, 제가 직접 지켜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90년대생이자, 채용담당자로 일한 지 어느덧 4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간 수많은 이력서와 면접자를 마주하였습니다. 90년대생으로서 ‘청년’이기도, 그리고 채용담당자로 ‘기업’이기도 한 저는 청년과 기업의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청년은 자신의 지원서를 빼곡히 채워 넣기 위해 대학 시절을 바쳤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고민해보지도 못한 채, 남들이 알아주는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 열심히 달렸습니다. 정작 입사하고 나서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사실은 내가 다니는 회사의 연봉도, 워라밸도 무엇 하나 만족할 수 없어서인지도 모릅니다. 기업은 소위 말하는 ‘고스펙’ 지원자들 사이에서, 소수의 인원을 채용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합니다. 면접을 진행하고 입사, 교육까지 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몇 개월 뒤 신입사원의 모습은 종종 기대와는 많이 다릅니다. 청년이라면, 그리고 기업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기업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요즘 세대’와 ‘기성세대’는 살아온 배경과 발자취가 너무나도 달라서 같은 지향점을 가져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갈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늘 서로가 등지는 방향으로 끝나곤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두 세대의 틈을 좁히기 위해서는 제도적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저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그러한 역할을 200%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신설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해가 갈수록 모습을 갖추어가면서, 많은 청년과 기업을 이어주는 특정한 연결고리가 되어주었습니다. 특히 실무자로서 감동했던 부분은 다음의 2가지입니다.

1. 임금 격차 해소 : 2년간 1600만 원, 3년간 3000만 원은 사회 초년생 처지에서는 매우 큰 금액입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여, 자연스럽게 중소기업의 임금경쟁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업로서는 청년에게 지원하면서도 실제로 드는 비용은 없어 부담이 덜하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2. 장기근속 유도 : 신입사원의 조기 퇴사는 양측에게 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3년의 기간을 청년이 한 직장에서 근속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2~3년은 기업이 청년을 회사의 핵심인재로 성장시키기에 알맞은 시간입니다. 청년 역시 그 기간 선불리 판단하지 않고, 본인이 속한 회사와 직무에 대해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서로가 승리할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해 주는 제도입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와 함께 변화하는 회사”

청년내일채움공제가 활성화된 이후, 변화된 모습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질문하라고 하면 고개만 숙이던 사원들이, 어색한 침묵을 깨고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되나요?”라고 먼저 묻는다는 것입니다. 취지도, 결과물도 좋은 제도가 이렇게 널리 알려지게 되어 실무자로서 덩달아 뿌듯한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도입과 함께, 긍정적인 변화를 더 만들어보려고 다양한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장시간 근로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52시간 초과 위험 알림과 유연근로제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10일 모두 소진할 수 있도록 독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계휴가 기간을 기존 4일에서 5일로 늘려 주말 포함 총 9일의 재충전 휴가를 다녀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도가 안착하는 과정이라 서툰 부분도 있지만 서로 행복한 회사를 만들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자 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은 사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꾸준히 존재해왔고, 그랬기 때문에 어쩌면 손쓸 수 없다고 덮어둘 수도 있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노동환경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문제점을 잡아내고, 해결하기 위해 훌륭한 제도를 개설했던 고용노동부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의 어느 ‘내일’은 기성세대가 되어 있겠지요. 그때는 또 그때의 ‘요즘 세대’와 충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정책과 제도가 뒷받침해준다면, 좁혀지지 않는 세대 간의 간극은 노동환경에서만큼 예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어봅니다.

**기업부문(입상)**

#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현철 (정철어학원신방용곡학원)

### “직원들의 경제적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고민했던 지난 시간”

저는 천안에서 어학원을 운영하는 40대 원장입니다. 아이들과 영어 공부하는 것이 좋아 함께 영어를 공부해 온 지 20여 년이 되어 갑니다. 젊었을 땐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했고, 지금은 전반적인 학원 운영을 하며 간간히 수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함께해야 하는 학원이라는 근무처 특성상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연령대가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까지로 매우 젊습니다. 또 근무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급여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이로 인해 이직률이 매우 높은 직군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근무해 주시지만 이러한 경제적인 이유로 힘들어하시거나 이직을 결심하시는 선생님들을 보면 20대의 제가 떠올라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내가 우리 선생님들을 도와드릴 방법이 없을까?’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아이를 좋아하시는 마음만으로 꾸준히 버티자고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염치가 없었고 만족하실 만큼 충분히 급여를 드리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았습니다.

### “회사의 비전과 직원들의 미래를 공유하는 관계가 되다”

선생님들과 함께 비전을 공유하며 즐거운 일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꾸준히 고민하던 중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관한 게시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글을 읽는 순간 ‘아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날로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관한 정보를 검색하고, 자문 업체를 통해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 후, 선생님들과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였고 충분히 논의한 후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저희 원은 2명의 선생님께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진행하고 계시며, 나머지 선생님들도 청약 신청 후 대기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 회식 자리에서 “원장님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해 주셔서 감사해요”라고 말씀하시며 밝게 웃는 선생님들을 보고 저도 모르게 마음 한편이 뭉클해졌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선생님들께는 한 달에 대략 53만 원 정도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었고, 사업장 입장에서는 청약 기간 2년 동안 이직의 가능성이 줄어드니 인사계획이나 수업 관련 장기 계획을 짜기가 매우 쉬워지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원 교무실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습니다. 함께 학원의 비전을 공유하고, 각자의 장기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학원에 대한 주인의식이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 “이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전도사”

이제 저는 주변 학원 원장님들에게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관해 정리해 놓은 정보 파일들 전달해 드리며 청년내일채움공제 전도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관한 정보를 검색해 가며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사업주분들이 많다는 것도, 또 청년의 삶을 함께 고민해 주는 좋은 분들이 많다는 것도, 마지막으로 그 고민의 결과로 나온 좋은 정책이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고단한 청년들에게는 희망을, 반복되는 이직으로 지친 사업자에게는 안정을 줄 수 있는 것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제도 마련해 주신 고용노동부에 감사드리며 우리 학원과 선생님들처럼 청년내일채움공제 수혜자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홍보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 기업부문(입상)

## 인재 육성 및 근로문화 개선시킨 청년내일채움공제

박지원 ((주)태양건설)

###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관심을 갖게되다”

당사는 1996년 4월 1일에 설립하여 24년 동안 시설물 보수와 다양한 공사 경험이 있는 전문건설회사입니다. 이전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 내용을 접하였으나, 올해에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었고 채용 HRD 고용사업본부를 통해 수기 공모전에 대해 안내받아 이것을 통해 얻은 장점과 느낀 점에 관해 서술하려고 합니다. 건설업은 타 업종과 비교하면 근로자 연령층이 높아 사실상 청년 근로자를 위한 제도에 관한 관심이 낮은 편입니다. 그러던 중, 이번 연도에 사무실 신입사원으로 청년 2명을 채용하며 청년근로자들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관심이 있다는 의사를 표현했고, 제도에 대해 알아본 뒤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청년근로자 인당 2년간 400만 원씩 기업에서도 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부담감이 있었으나, 일단 기업에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고서 기업에서는 내야 하는 금액이 하나도 없고 정부에서 기업기여금으로 450만 원을 지급해 최종적으로는 인당 50만 원씩 지원받는 셈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근로자들의 요청에 부담 없이 승낙할 수 있었고, 퇴사율도 낮추고 기업으로서 수익이 생기기 이보다 더 좋은 제도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근로자 개개인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만 기업에도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하며, 당사 측에서 생각하는 특 장점을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업의 핵심인재들을 길러내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첫 번째로는 인재 육성에 크게 이바지한다는 것입니다. 당사 청년근로자들에게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해도 된다고 했을 때, 근로자들이 좀 더 열심히 업무에 임하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회사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근무하기 시작했고 본인 업무가 아닌 그 이외 업무도 배우고 터득하려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러한 자세는 상사 관점에서 실수를 하더라도 다시 한 번 가르쳐주고 숙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였고, 열정적으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배움의 자세가 되어있다가 보니 업무를 빠르게 익히고, 자신이 가진 역량을 펼치며 업무에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인재 육성에 크게 이바지한다고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직원들의 장기근속을 이끌며 팀워크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청년근로자들 중에는 사회생활 경험이 적기 때문에 업무나 분위기에 적응을 잘하지 못하기도 하고 퇴사가 잦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청년근로자들에게, 퇴사를 결정하기 전에 충분한 고민과 신중한 선택을 할 기회가 제공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년근로자들도 오래 다니려고 결심했기 때문에 동료애를 가지고, 직장동료들과 유대감이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동료애는 팀워크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석 달 전, 청년근로자들이 입사한 후 회식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회식 때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한 청년 직원이 “다른 회사들과 달리 당사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빠르게 승낙해주셨기 때문에 본인들을 신뢰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랫동안 다닐 곳이라 생각하니 회사가 아닌 가족 구성원에 한 일원이 된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기업으로서도 과연 이 청년근로자들이 업무와 우리 회사에서 적응을 잘하고 장기근속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회식자리를 통해 속 깊은 대화를 하며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장기근속과 팀워크에 큰 도움을 준다고 느꼈고, 현재까지 업무를 하는데도 아무 문제 없이 화합하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기업과 근로자 함께 WIN-WIN!”

마지막으로 기업도 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업지원금이라는 것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당연하게 청년근로자가 본인부담금을 내고, 기업에서도 청년근로자를 위해 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청년근로자 1인당 4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용센터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취업지원금’은 물론 기업에서 지원하는 ‘기업기여금’도 전액 청년의 가상계좌에 적립해준다는 것을 알고, 그럼 기업으로서는 손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인당 50만 원씩 순지원금으로 회사에 지급해주는 것을 보고 왜 빨리 알고 시작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5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청년근로자 한 명 당의 지원금이기 때문에 당사는 현재 2명의 청년근로자를 통해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추후 청년근로자를 더 채용하게 되면 더 많은 금액을 혜택 받을 수 있으므로 기업으로서 매우 좋은 조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당사 입장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청년에게 사회 경험을 제공하고 정신을 조절하는 힘을 길러주며, 청년근로자와 기업 모두 상호승리(win-win) 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더 많은 인재를 채용하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꾸준히 진행할 것이라 확신하고, 이 제도를 통해 청년실업자와 기업들이 구직난, 구인난을 벗어나 좀 더 튼튼하고 안정된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업부문(입상)

# 청년기업의 꿈과 희망을 실현시켜준 청년내일채움공제

안동하 (플라월)

### “사업을 시작하면서 직원 관리에 어려움을 겪다”

저는 광주광역시에 있는 ‘플라월’이라는 상호의 청년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 안동하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하여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위한 근로문화 개선과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 간략하게 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2013년, 부모님이 운영 중이신 건축자재 총판 대리점의 제품들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의 신분으로 시작하였기에 상품 기획, 디자인 작업, CS 업무, 사무 회계 업무, 심지어 제품 포장까지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직접 도맡아 하며 친구 한 명과 함께 기업을 운영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증가하고 기업이 커질수록 대표가 직접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한계를 느껴 직원을 고용할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나서 2014년 처음 2명을 고용하였고 그 이후로 기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계속해서 인원 충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신규 인력은 필요한데 기존 직원들은 퇴사하는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때에 따라 기존 인원이 여러 가지 업무를 병행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인사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존 업무를 리스트 화하여 안내서들을 작성하고 업무 분담을 만들어 고용 및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려 하는데, 회사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장기간 근무한 직원이 없어 업무 대비 근로자 개인의 업무 해결 능력 정도를 가능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렇다 보니 효율적인 업무 분담을 만들기도 어려웠으며, 업무를 분담하여 진행 도중 기존 직원의 퇴사로 인해 시스템이 안정화되기까지 많은 변수가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퇴사 이유를 ‘급여 조건’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최저 임금보다 높은 급여도 지급하기도 하고 여러 복리후생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중소기업 특성상 업무 분담 자체가 안정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업무에 어려움을 느껴 퇴사하는 예도 있고, 대기업 대비 낮은 임금으로 안정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여 퇴사하는 예도 종종 있었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로 안정적인 기업 시스템을 정착시키다”

이처럼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다 보니 신생 기업이기에 더욱이 직원들의 장기근속과 조직 문화가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그중 하나의 지원 사업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직원들의 기본적인 급여 수준을 높여주어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제공할 수 있었던 점입니다. 복리후생의 경우 간헐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기에, 기업 측에서는 복리후생 제공에 상대적으로

로 부담을 덜 느끼게 되지만 기본 소득을 높이는 것은 지속해서 유지가 되어야 하기에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를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으로 대체하니 그 외의 부대비용은 자연스럽게 복리후생을 개선하는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조직 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기업 시스템의 정착이 가능해졌습니다.

### “직원들의 장기근속과 역량 강화를 이끌어내다”

두 번째로 좋았던 점은 직원의 역량 강화입니다. 디자인이나 회계 업무는 업무 특성상 장기간 경험이 필요하며 다양한 내용의 업무를 이해하고 숙지해야 하는 업무들이라, 직원의 근속 연수가 중요한데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사업을 진행하며 조기 퇴사율이 현저히 낮아져 적절히 업무 배치를 할 수 있어 인사 시스템뿐만 아니라 기업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안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직원들이 담당 업무를 꾸준히 수행하여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단순히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공제금을 기간에 따라,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는 형식이기에 자연스럽게 1년 이상 장기 근속하는 직원의 수가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영향으로 향후 로드맵을 그리고 계획한 대로 인원 배치를 하고 업무를 배분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전반적인 시스템 안정과 더불어 생산성 향상을 통해 기업의 이윤까지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직원들에게는 급여 만족도를 높여주는 것과 더불어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인 경력 형성의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 기업부문(입상)

## 꿈꾸는 ‘청년’, 후니드에서 ‘내일’을 ‘채움’하다

조성준 ((주)후니드)

###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맞물려 획기적인 고용을 창출해내다”

때는 바야흐로 2018년 2월... 설레는 마음으로 후니드와 미래를 함께 할, 꿈꾸는 ‘청년’ 들을 처음 만나게 된 날을 회상하면서 본 수기를 써 내려가 봅니다. 후니드는 기업 임직원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구내식당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런 저희에게 조리사는 매우 중요한 인재였으며, 항상 다양한 방법으로 채용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이직률도 높은 직종이고 TV에서 자주 접하게 된 멋진(?) 요리사들을 보면서 같은 꿈을 꾸는 조리사들이 많아졌던 때인지라 단채급식 분야에서 일할 역량 있는 조리사를 구인하는 데 무척이나 어려움이 많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조리사 채용을 담당하고 있던, 한 매니저의 진정성이 스며있는 채용 기획안이 실행되어 처음으로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정부에서 군 장병들의 전역 이후의 진로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때로, 이에 우리 회사도 정부정책에 발맞추어 ‘취사병’이라는 보직에 초점을 맞춘 특화된 채용을 기획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시작점에는 바로 2018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던 ‘청년내일채움공제’ 공표가 있었고, 그 취지와 시점이 저희 기획안과 아주 잘 매칭되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후니드는 실행과정에서 육·해·공군 뿐만 아니라, 해병대에 이르기까지 쏘 군에 걸쳐 해당 제도를 접목해 인재 추천을 요청하였고, 그 가운데 제일 먼저 ‘육군 제대군인 지원처’라는 군 인사조직과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성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청년들에게 좋아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확신을 주다”

물론 업무협약 이전에 이미 조리사 채용 전반에 걸쳐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육군 취사병 과에 복무 중인 전역예정 장병을 대상으로 총 9명의 조리사를 1차 채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대기업도 아닌 중소기업과의 전역예정 현역병 최초의 채용 사례로 회자되고 있으며 국방TV, 한경매거진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아직 복무 기간이 남아있는 장병들에게 입사지원을 위한 특별휴가 부여, 회사의 인솔, 채용설명회, 현장 실무면접까지 단 하루에 걸친 논스톱 채용을 진행하여 1주 이내로 최종합격 안내를 했던 것이 지원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충분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지원자들의 긍정적인 의사결정을 끌어내 준 원동력이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이었습니다. 면접 중 지원자들이 언급한 계획없는 막막하기만 한 전역, 적성에 맞지 않는 전공으로의 불확실한 복학, 학력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에 대해 신속한 해결책과 대안제시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지원자들은 바로 이러한 갈등 속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를 통해 더욱 안정적이고, 자신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조리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하고 후니드로 날아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청년 인재들에게 후니드는 아주 특별한 5가지의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첫째, 군 경력을 인정하여 수습 기간을 면제하고 입사와 동시에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한다. 둘째, 본인이 원할 경우, 재직 중에도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 취득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셋째, 입사 시점에 조리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우선 조리 보조

원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자격 취득과 동시에 신입 조리사 정규직으로 즉시 전환한다. 넷째, 다른 지역 근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사자 전원에게 아파트 등 거주용 숙소를 제공한다. 다섯째, 조리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회사가 보유한 조리교육 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참여시킨다. 이처럼 후니드는 청년들의 장기근속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끊임없는 제도 시행과 구성원들의 참여를 끌어내고 있으며, 이는 현장에서의 인당 생산성 향상과 고객 만족을 동시에 충족시킨 최고의 기업역량 향상 사례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후니드는 육군과 국방부로부터 전역예정 청년 장병 채용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참모총장과 장관 명의의 감사패와 채용 우수기업 인증 등을 받았습니다. 2020년 6월 현재 총 104명의 청년이 근무하고 있으며, 조리사 이외에도 영양사, 바리스타, 방송제작, 시설관리, 사무 분야 등 다양한 직종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를 통한 우수한 청년 인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0년 5월에 2년제 첫 번째 만기 사례가 배출되었으며,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만기수혜자가 나올 예정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수혜를 통해 입사 후 2년이라는 시간이 청년들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첫발을 내딛게 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시간은 10년 이상의 더 크고 원대한 계획과 비전을 품고 후니드에서 그들의 나래를 펴 비상(飛翔)하게 되는 시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후니드는 ‘신규 고용창출’이라는 사회적 책임에 더욱 무게를 두고 청년고용에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 “더불어 꿈꾸어가는 기업과 직원”

후니드는 年 2회에 걸쳐 공개채용 방식으로 청년 인재를 신규 채용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 지역 단위 인력센터 등 다양한 채용채널을 개발해 인재를 추천받고 있으며, 대외 채용박람회 참가를 통해서도 잠재적 인재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용 활동을 보다 견고하게 해주고 청년들에게 중장기 비전을 제시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큰 공감대는 바로 다름 아닌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후니드는 청년 인재들과 함께 ‘VISION 2030’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혜택 받은 제도를 더욱 모범적으로 수행함과 동시에 그들이 곧 최고의 성과이며, 기업과 국가의 미래라는 사실을 홍보하고 전파하여 더 많은 사례를 창출하는데 일조할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한민국 청년 취업률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니드는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코로나19’ 확산이 다소 진정된 시점인 지난 4월과 5월에 보건당국의 위생지침을 준수하면서 신속하게 청년 공채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최종 30명이 입사하여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선배들의 뒤를 이어 ‘청년내일채움공제’ 수혜를 입고 보란 듯이 전문가로 성장하여 자신의 분야에서 묵묵하게 일하는 인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Good to Great’을 지향하는 좋은 기업이라면 지속 가능한 고용과 안정적인 근무환경 등을 꾸준히 유지하고 만들어어나갈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바로 그런 사회적 소명의식을 가진 기업과 청년들의 만남을 이어주는 ‘동아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상호 존중과 배려, 고객 중심적 사고, 윤리의식이 유연하게 내재화된 청년 인재를 지속 육성하여 작지만 내실 있고, 구성원과 고객의 행복을 최고로 지향하는, “함께 ‘同行’하며 함께 ‘同幸’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 후니드의 모습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후니드는 언제나 ‘내일(Tomorrow)’과 ‘내 일(My Job)’을 동시에 ‘채움’ 할 수 있는 ‘청년’들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업부문(입상)

한 인재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황윤정 ((주)아이윌)

## “20대 청년의 환영받지 못한 입사”

그는 달랐다. 우려에 보란 듯이. 따르릉. 축축한 바닷가 공기를 밀면서 자전거 한 대가 회사 마당을 가로질러 들어온다. 한쪽 입구에 자전거를 척 대면서 카랑한 인사를 한다. 탈의실로 뛰어들어가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나온다. 태가 날 리가 없다. 며칠 때가 문은 작업복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가뿐하게 공장 안으로 사라진다. 어느 집 철없는 아들내미가 야무진 일꾼이 되는 순간이다. 벌써 6개월째, 지금까지 가장 오래 견디어 내고 있다.

“20대의 너무 어린 친구 말고, 40대 중반으로 뽑아줘. 고 정도 되는 사람들이 사회생활도 어느 정도 해봐서 인생 쓴맛도 알고, 적응력도 좋고, 내성도 좋아요. 젊은 친구들 황 과장도 겪어봤잖아. 다 도망가. 나도 이제 일 가르쳐 주기 지겹다. 가르쳐 놓으면 가고, 또 가르쳐 놓으면 가고, 지친다. 이제 내 진이 다 빠지겠다. 그냥 영감들 뽑자.”

6개월 전, 현장 반장님의 의견을 무시하고 27살의 그 청년을 뽑자, 반장님은 꽤 오랫동안 나를 째려봤다. 자기 아들이 저만한데 못 써먹는다고 했다.

## “우리는 잘 키워 봅시다.”

그렇게 그는 환영받지 못한 입사를 했다. 어느 신간의 제복처럼 우리 회사에도 90년대생이 왔다. 그가 오기 전 스쳐 지나간 사람들이 한 꾸러미도 넘었다. 하루 일하고 연락 두절이 된 사람부터, 일주일 정도 열정 넘치게 일하다가 자기 풀에 켜여 나가 떨어진 사람까지. 한 이틀 정도를 일하고 그만둔 사람을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만난 적이 있었는데, “더운 공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시원한 가게 안에서 바코드 찍고 과자 정리 하는게 더 편해요. 어차피 시급으로 따지면 비슷한데요. 뭐.” 총기 없는 눈은 9급 공무원 영어 단어장을 훑고 있었다. 우리 공장은 어망 조립공장으로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작업현장이다. 기계 화되어 있는 요즘 시대에 일의 특성상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태반인데 몸을 많이 써야 해 기피산업으로 분류된다. 힘든 만큼 특이산업직종이라 일을 해나가면 꽤 재미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우치기 전에 포기해 버리는 것이 안타까웠다.

## “노력하는 청년에게 디딤돌이 되어 준 청년내일채움공제”

그가 처음 출근했을 때, 공장 사람들 눈에는 불신이 가득했고, 며칠을 버틸지 내기까지 하는 분위기였다. 일도 잘 가르쳐 주지 않았고, 곁을 내어주지도 않았다. 그러나 청년은 떨어지는 사과를 기다리기보다 나무에 올라타 사과를 따 먹는 똑똑한 아이처럼, 먼저 다가가 가위를 잡고, 칼을 잡고, 밧줄을 잡았다. 스스로 밧을 떼며 다가오는 아이가 기특한 것 마냥, 다가오는 그를 어여삐 여겨 하나둘 가르쳐 주었다. 청년은 노를 저어 앞으로 나아가는 즐거움을 깨우치고 있었다. 우리도 그를 키우는 보람을 느꼈다. 모두가 어미 새가 기꺼이 되려 했다. 조금 쿼쿼하고 녹녹하던 현장의 분위기는 그로 인해 활기차졌다. 아기 재롱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손짓 하나에 까르르 넘어가는 유치한 가족처럼 단란해졌다. 어떤 날은 공장에서 그의 이름이 제일 많이 불리는 날도 허다하다. 마치 김춘수 시인의 꽃처럼, 그의 이름을 부르면 그는 뛰어가 일을 해내어 주었다. 예전 떠나가 버린 사람들처럼 만들지 않기 위해, 그를 붙잡을 무언가가 필요했고, 청년내일채움공제로 그의 마음을 붙잡아 둘 수 있었다.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에게 보상을 주어 우등 성적표를 받는다면 이것은 완벽한 상호승리가 되는 거다. 지금 막 일에 흥미를 등에 지고 높을 계단을 오르는 그에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디딤돌이 되어 줄 것이다.

그가 들어오고 6개월간, 네 명을 더 총원했는데 신기하게도 모두 3, 40대였다. 60대만 있던 공장은 한껏 신선해졌다. 그가 모고 온 신선한 바람이었다. 늙어가던 우리 회사가 젊어지고, 단단해진 미래를 가진 것 같아 든든해졌다.

##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언젠가, 회식할 때, 그에게 물었던 적이 있다.

“너,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되면 뭐할 거야?”

“그렇게 큰돈이 있어 본 적이 없어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매일 매일 달라져요. 차도 사고 싶었다가, 독립 자금으로 쓰고 싶다가도, 또 그냥 예금을 넣어둘까 하다가도. 아직 모르겠지만, 벌써 엄청나게 설렙니다. 사실 계획 같은 거 세울 생각도 안 해봤는데, 막연히 월급 받고 쓰고 그게 다였는데, 공제하니까 무슨 내 전용 비서를 둔 느낌이에요. 난 그냥 일하는데 거의 2천만 원이 생긴다 하니까, 무슨 날개를 단 느낌이라랄까요.”

그의 눈에는 반짝이는 빛들이 가득 차 있었다. 아, 내가 다 뿌듯해졌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한 인재를 오롯한 사회인으로 키워내기 위해서도 그 개인 혼자만의 능력만으로도, 사회만의 제도만으로도 안 된다. 사회가 끌어주고 개인이 열심히 뛰어야 한다. 더불어 노력해야만 한다.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식의 대책 없는 훈계는 소용이 없다. 적어도 튼튼한 삼은 잡아주고 땅을 파라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의미 있는 삽질이 되게. 제도의 이름처럼, 그의 인생에도, 우리 회사의 미래에도 꼭 채운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오늘이 감사히 느껴질 따름이다.

## 기업부문(입상)

# 이건 너를 위한 스페셜 청년내일채움제도(이.너.스.)

박준수 ((주)이너스커뮤니티)

## “직원들의 장기근속 유도를 중점 해결과제로 설정하다”

(주)이너스커뮤니티에서 5년 간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준수입니다. 이너스커뮤니티는 종업원 수 30여 명의 광고대행사로써 20년의 업력을 바탕으로 탄탄하게 성장해 온 기업입니다. 2000년 닷컴혁명시대에 설립되어 현 스마트혁명의 시대까지 20년간의 엄청난 환경 변화 속에서도 잘 적응하며 꾸준히 성장해온 점을 감안하면 대표적인 강소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연혁을 거치는 동안에도 풀지 못한 숙제가 바로 인사였습니다.

일반 사무직과 달리 광고대행업무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므로 인재의 채용이 어려운 데다가 이직률 또한 높습니다. 광고업의 특성 상 광고주가 요구하는 납기(Due-Date)를 맞추어야 하니 긴박하게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많고, 1년 이상 동일 브랜드를 진행하고 나면 다른 브랜드를 하고 싶은 욕구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SNS와 뉴미디어의 발달로 광고시장 자체가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어 젊은 인재들의 이동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2016년도에 이너스커뮤니티에 입사하면서 직원들의 장기근속 유도를 중점 해결과제로 정했습니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항상 새로운 인력의 채용과 교육에 매달려 본연의 인사업무를 책임지기 어렵고, 회사 차원에서도 직원들의 이직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과 그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해결 방안을 찾다가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훌륭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당장 신규입사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경영진에 이 제도의 도입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경영진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터이니 직원들의 의견부터 수렴해보려 하였습니다.

## “예상외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냉담했던 직원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직원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특히 신입사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연봉이 적을 수밖에 없는데 급여에서 일정 금액이 빠져나간다는 것에 대한 반감이 컸습니다. 그것이 비록 나중에 혜택으로 돌아올지라도 당장 급여에서 공제되는 것을 눈앞의 손실로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예상 외로 직원들의 반감이 크자 인사담당자인 저 또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매 회차 마다 직원들에게 설명하며 서명을 받아야 하고,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서류 접수와 함께 해당 기관과 소통하는 일들이 적지 않을 텐데,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괜히 시작했나 싶은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렇게 잠시 주저하다가 다시 제도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며 청년 근로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내가 만일 나이 젊은 신입사원이었으면 반드시 가입하여 혜택을 받아야 하는 제도라는 판단이 들었고, 그 혜택을 직원들에게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것은 인사담당자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해당 직원들과 1대 1로 만나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하고 설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우선 신규입사자들에게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장점과 실제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안내해주었고, 매월 공제 금액은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비용이 아니라 시중 어느 은행에서도 찾을 수 없는 고금리의 적금과도 같은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은행의 장기 적금보다 기간이 훨씬 짧은 2년 만기 적금과 같은 것으로 2년 후 퇴직금보다도 훨씬 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특 장점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에는 높은 이직률에 따른 보이지 않는 비용을 감축한다는 전제하에 신입 직원들의 연봉 인상을 건의하였습니다. 신입사원들을 2년 이상 근속시킬 수 있다면 신규 채용에 투여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 신입 직원들의 교육과 적응 기간 등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장기근속으로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며 생산성 향상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회사 경영진은 신입사원들의 연봉을 비슷한 규모의 다른 회사들 대비 약 25% 인상하였고 신입사원들은 매월 공제되는 금액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또한, 채용 시, 회사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운영하는 점을 홍보함으로써 더 많은 인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실제로 젊은 인재 채용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2020년 창립 20주년 기념 시무식에는 올해 달성과제 중 청년내일채움공제를 1번 과제로 삼아 현재 신규입사자들 외에 재직자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많은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야말로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이처럼 훌륭한 제도가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개선·발전해나감에 유지됨으로써 대표적인 정부 지원 사업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기반이며 많은 청년이 그곳에서 일자리를 얻고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장래도 밝다고 생각합니다. 기업과 청년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지속해서 역할을 해주길 바라며, 인사담당자로서 이 훌륭한 제도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동시에 기업과 직원들의 목소리를 정확히 수렴하여 개선과 발전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업부문(입상)

## 직원을 중시하는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의 진심

권다원 ((주)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 “직원의 75%가 20-30대인 회사”

(주)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은 1988년 창업 이래 과학적 조사의 전략적 컨설팅으로 지난 30여 년간 축적된 지식과 시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의 Insight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업의 현안을 연구하여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5Value(가족, 건강, 자율, 역량, 조화의 경영이념) 아래 마음과 신체가 건강한 조직 문화 형성을 위해 5Value를 실천해 나가며, 성장의 가장 큰 동력인 인재양성을 위해 유연하고 창의적인 기업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고용노동부가 선정하는 강소기업 중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이 우수하고 경쟁력을 갖춰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되었는데 이는 정규직 비율이 98% 이상, 청년 근로자 기준 정규직 비율이 100%이며 수직적인 기업문화가 아닌 직원들과 협력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조화로운 조직문화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직원의 약 75%가 20~30대일 정도로 젊은 직원이 많습니다. 이에 사회 초년생들의 자산형성에 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청년층으로 이뤄진 사내문화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는 데에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또 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 “동반성장에 대한 생각, 청년내일채움공제로 연결되다”

당사는 리서치컨설팅 기업으로 사람이 곧 자산이기에 직원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직원이 만족하는 회사가 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신입사원의 경우 임금수준에 대한 재정적 한계가 있어 합리적 수준에서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신입사원과의 면담에서 요즘 청년들은 대학 졸업과 동시에 등록금 상환의 의무를 지고 상당한 취업준비 기간을 거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일상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안정적 일자리 마련”과 “월세, 생활비 등 주거비용”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데 이런 사회적 문제에 대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이고,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처우 개선의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청년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열쇠였습니다. 더욱이 사회 초년생의 경우 급여가 높지 않아 목돈을 마련하기 쉽지 않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자연스럽게 목돈을 마련할 기회가 되어 자산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므로 이를 통해 '직원의 성장과 안정이 회사의 성장'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는 등 '청년내일채움공제' 도입 후 신입사원 입사 지원을 증가로 채용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변화하는 사내 문화”

청년내일채움공제 도입을 위해 직원과 대표이사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회사 전체 임직원이 사용하는 내부인트라넷과 게시판에 공지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배경과 목적 그리고 취지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정규직 고용보험 가입 시점 기준으로 대상자 선별이 이뤄지기에 공공게시판에 공지해두는 것으로는 직원분들의 가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에 기본 자격요건 검토 후 대상 인원을 선별해 해당 인원이 기간 내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과 협력하여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직원들 한 분 한 분을 고려하고 있다는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 회사와 직원 간 더욱 돈독한 관계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한 개별 면담을 시작으로 사내 복지제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 지속해서 사내 복지제도에 대한 피드백을 반영해 개선하고 있습니다.

### “더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회사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 홍보 및 운영 알림을 통해 조직문화에 안정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신 직원분께서는 “근무 중 문득 2년 후에 받을 금액으로 이것저것 계획, 생각해보는 게 업무에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전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었고 회사에 다니는 원동력이 되는 듯합니다.” “중소기업에 다녀도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일생에 한 번 뿐이고 2년 후에 목돈이 마련되니 제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실제 느낄 수 있는 보상은 더욱 컸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도입으로 성과 보상적 측면에서 개개인이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업무에 대한 능력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개개인별로는 새로운 목표의식을 만들어 개개인의 삶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지속해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운영하기 위해 실무인력의 행정처리 숙련도 향상 및 직원 개개인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잘 자리매김하여 더 많은 직원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업부문(입상)**

**뿌리 기업  
청년 고용의 꽃  
청내공**

손종훈 (에스지오)

**“평균 연령대가 50대인 회사에 입사하다”**

제가 2년 전 처음 에스지오에 들어왔을 때 직원들의 평균 연령대는 50대였습니다. 사장님이 2000년부터 시작하신 회사였기에 창립 초기부터 함께 해온 직원분들이 대부분이었고 젊은 직원들은 해외영업팀에만 몇몇 있었습니다. 이러한 회사의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서 젊고 에너지 넘치는 직원들을 뽑고 싶었지만, 구인광고를 올려도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전통적인 부품 제조 뿌리 기업에 지원하는 청년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간혹 채용하더라도 업무를 가르치고 나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기에, 청년 채용이 망설여져 오히려 장년층 위주로 뽑을까 고민도 많았습니다.

**“어느새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직원이 10명을 넘게되다”**

그러던 중 중소기업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많다는 것을 문득 생각하고는,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방안에 대해 찾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제도를 찾아본 끝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가 적합하다는 생각을 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젊은 직원들을 채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산업체가 끝나는 고기능 청년들부터 시작했고, 우리 회사에서는 최초로 군 복무 기간이 끝난 청년 3명을 채용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회사는 뿌리 기업으로 2년형, 3년형 모두 진행 가능하므로 설득이 쉬웠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산업체 직원 외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이용하여 하나둘 직원들을 채용하다 보니 어느새 청년내일채움공제 진행하는 인원이 10명이 훌쩍 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2년, 3년 재직 기간을 채워야만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덕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직원들은 쉽게 회사를 그만두지 않게 되었습니다. 2년 이상 다니는 청년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직원들의 장기근속은 중소기업에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2년 이상 근무하여 익숙해진 직원들은 회사에 적응되어 그 이후로는 쭉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경우는 이미 만기금을 받은 직원도 3명 정도 되는데 누구 하나 퇴사하지 않고 계속 우리 회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청년들의 입사로 인해 회사의 평균 연령대는 30대로 확 내려갔고, 회사의 경직되었던 분위기도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2019년 10월에는 KBS1 ‘사장님이 미쳤어요’라는 TV 프로그램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회사 분위기는 젊은 직원들이 많은, 활기찬 분위기로 변모했고, 사장님이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청년들이 다니기 좋고, 여직원들이 많은 회사라는 장점이 많이 부각 되었습니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 뿌듯하게 만들어주는 제도”**

얼마 전 당사에서 2년 동안 재직하여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게 된 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명은 결혼 준비로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면서 이런 제도를 회사에서 시행해주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생각도 못 한 기회가 와서 복권에 당첨된 느낌이라고 하여 제 일처럼 기분이 좋았습니다. 누구에게 감사를 받으려고 한 일은 아니었고 인사팀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뜻하지 않게 내가 한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니 보람이 느껴졌습니다.

고용이 불확실하고 앞날이 불확실한 청년들과 중소기업을 위해 이런 제도를 만들어준 정부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삶에 마음 써주는 나라와 정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19로 인해 또다시 많은 청년과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좋은 정책 더욱 많이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 근로자 부문

나의 청년, 나의 내일

- 김수정 (초원식품)

울지 말고 천천히 말해보요. 내일채움...없어요?

- 김선혁 ((주)위킵)

경단녀에게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배정빈 ((주)엠제이락)

내일이 없어 보일 때 내일을 선물 받았습시다

- 우선식 (농업회사법인 (주)아드리코)

오늘이라는 기적

- 최정인 ((주)스카이뱅크)

내게 '내일'이란 기회를 주어 고맙습니다

- 장진주 (유한회사 소미노)

역마살도 끊어낸 청년내일채움공제

- 정태연 (동래병원)

청년내일채움공제 더불어 수기 공모전

<부제 : 청년내일채움공제로 도전하는 삶을 살다>

- 이봉로 (브로드밴드 아이디씨)

나를 한 발짝 더 성장하게 해준 청년내일채움공제

- 윤소희 (심리상담연구소 행복나무)

'청년내일채움공제' 로 찾아온 긍정적인 삶의 변화들

- 김태윤 (나노텍세라믹스)

내 삶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준 청년내일채움공제

- 홍찬영 (무한테크 잉크프로컴)

희색빛 정답 <부제: 청년이 내일을 채우는 방법>

- 최시온 ((주)유씨웨어)

미래가 든든하게 채워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 임지연 ((주)지앤엠)

나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

- 이재원 ((주)에이플러스알에프)



근로자부문(대상)

# 나의 청년, 나의 내일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나의 첫 취업 이야기)

김수정 (초원식품)

“나는 나를 잘 알았다”

성인이 되기까지 나의 꿈은 백 번도 넘게 바뀌었다. 고등학교 시절 취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과를 선택했고, 선택의 폭은 반으로 줄었다. 그 후 남들과 똑같이 성적에 맞추어 대학에 왔다. 그러나 운이 좋게도 흥미가 있던 식품 영양학과에 지원했고 입학과 동시에 취업을 위한 계획을 설계했다. 4년간 장학금을 받으며 높은 학점을 유지했고 부지런히 방학 때마다 8개의 자격증을 뚫으며 면접을 대비해 교내·외 활동까지 했다. 취업난이지만 그건 남의 얘기일 뿐 대기업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스스로 자부했다.

그러나 탄탄대로일 줄 알았던 취업문은 나에게 너무나도 좁았고 좌절감을 맛보게 되었다. 한 달 동안 150개가 넘는 이력서를 냈으며 50곳이 넘는 면접을 봤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취업사이트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입을 뽑는다는 공고가 올라온 것과 달리 경력이 없는 신입은 뽑지 않았다. 점점 한국의 취업 현실에 화가 났다.

취업이 처음이라 돈이 최고인 줄 알았고 외진 곳에 급여를 높게 주는 곳에 취업했지만 그런 곳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곳이었다. 많은 고민 끝에, 2주 만에 퇴사를 결정했다. 그 후 집 근처에 다른 직장을 얻었고 누구보다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그곳 역시 입사 한 달 만에 회사의 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7개월 만에 부모 위기를 겪었고 임금체납, 신용등급하락과 함께 퇴사하게 되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로 실패를 딛고 일어서다!”

기대와 다른 현실과 두 번의 실패로 좌절을 겪었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식품 개발이라는 업종으로 변경을 했고 운이 좋게 입사를 하게 되었다. 다시는 그만두지 않고 진득하게 몇 년간 경력을 쌓고 싶었고 이 다짐을 품고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게 되었다. 많지 않은 신입의 임금이 힘이 들 때면 2년 후에 대한 기대로 일어서게 되었고 만기 수령에 맞추어 장기 계획을 세워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인정도 받고 나 자신의 성취도도 높아졌다. 또한, 이를 가능하게 했던 나라와 국가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생겨났다.

새 업종인 만큼 기본부터 탄탄히 전 제품에 대해 공부했고 여러 사람에게 자문하여 역량을 키워나갔다. 한 회사에 2년이 묵인하는 단점, 그 단점은 경력을 쌓아야 하는 신입인 나에게 너무나도 좋은 기회이자 장점이었다. 더 나아가 내 모든 힘을 이 회사

에서 2년간 쏟아 붓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되니 신제품 개발에 자신 있게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 하나둘 내가 만든 제품이 시장에 나오게 되었고, 지금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성취감을 느끼는 중이다.

“모두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지금 생각해 보면 학창 시절 직업의 우선순위 1위가 성취감을 이룰 수 있는 직업이었다. 그러나 살아오면서 남들의 입맛에 맞추고자 연봉, 대기업이 1위가 되었고 성취감은 뒤로 밀려 잊고 살았다. 대기업과 공기업만 중시하는 사회이다 보니, 그렇게 되지 못한 나는 패배자라고 스스로 생각했다. 하지만 최근 국가에서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 여러 정책을 만들어주었고, 이제는 대기업보다 여러 정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에 다닌다는 사실이 떴떳하다. 어떻게 보면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 속에서 만기 수령이라는 목표가 생겼기 때문에 더 힘을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매년 많은 졸업자가 세상에 나온다. 저마다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그 꿈을 위해 4년간 노력을 한다. 하지만 내가 그랬듯이 처음이기 때문에 실패를 겪거나 잦은 이직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 청년내일채움공제로 인해 좌절을 이겨냈듯이 세상에 나오게 될 많은 졸업자가 나와 같은 좌절을 겪지 않기 위해 이 제도가 좀 장기적으로 계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근로자부문(최우수상)

# 울지 말고 천천히 말해봐요. 내일채움... 없어요?

김선혁 ((주)위킵)

## “미래에 대한 걱정, 그리고 알게 된 청년내일채움공제”

마케팅 직무로 2년 10개월을 일하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을 프리랜서로 일하게 됐습니다. 일정에 맞춰 일하기보다는, 실 때는 쉬고 일해야겠다는 생각 들 때 집중적으로 일을 구해서 하는 방식의 삶이 이어졌습니다. 직업은 없지만, 직업이 있는 것처럼 일했고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일을 하지 않은 상황에 이미 익숙해졌습니다. 미래를 함께 만들기로 한 여자 친구와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했지만, 실제로 저는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 채 허황한 꿈만 꾸는 몽상가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무를 하며 틈틈이 공부했던 영상 편집 능력이 있었기에 유튜브 채널 편집 일을 구해서 하기도 했고 물류 센터에서도 일했었습니다. 퇴근한 후에 저녁을 먹고 씻고 나면 일을 할 수 있다는 안도감과 함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밀려오곤 했습니다.

‘이렇게 일하는 게 맞는 걸까?’ ‘이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걸까?’ 재미는 있었지만, 미래를 위해서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마케팅이라는 직종은 사실 제 전공과는 다른 업무에 가까웠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입사하게 된 회사에서 마케팅 직무 경력을 쌓았지만, 깊게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한 건 작년 말 새로운 마음으로 경력을 인정해주는 회사에 입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후였습니다.

직무와 맞는 곳에 가서 그저 열심히만 하면 인정받고, 경력을 쌓아 또 다른 좋은 직장으로 가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으로 취업사이트를 돌아다니던 중 ‘청년내일채움공제 가능’이라는 항목을 내세우고 있는 기업들을 보게 됐습니다. 주 5일 근무, 점심 식사 제공 등을 복지로 내세우고 있는 기업들은 많이 봤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해준다! 라는 조건을 내세우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본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입사하는 회사에 2년 동안(혹은 3년) 다니며 적금 형식으로 돈을 받게 되면 청년이 300만 원, 정부가 900만 원, 기업이 400만 원을 공동으로 적립해 만기 시 총 1,600만 원으로 돌려주는 제도. 두 달 정도의 월급을 저금하면 연봉의 반을 준다는 획기적인 제안이었습니다.

## “청년들을 위한 제도이자 믿고 일할 수 있는 확인증”

수많은 면접을 보았습니다. 20여 개의 회사와 면접을 봤고, 면접 끝에는 항상 청년내일채움공제 여부를 물어보았습니다. 단순히 목돈을 마련한다는 좋은 취지로 물어보기도 했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장점은 ‘목돈마련’ 하나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하는 기업은 나라에서 이 기업은 청년이 믿고 일할 수 있는 좋은 기업이다라는 확인증을 발급받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이 그리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흔쾌히 진행해주는 기업이라면 어느 정도 청년들에 대해 관심이 있고 직원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후원을 해주는 곳이라는 신뢰를 준다고 느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회사 생활을 할 때는 가슴 속에 열정보다는 퇴직서를 품고 다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회사와 내가 맞지 않으면 이것을 이겨내고 해결할 생각을 하는 것보다 ‘그냥 그만두고 다른 회사를 구하면 그만이다.’

라는 뜻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만큼 회사는 많고 솔한 직원을 통해서 어떤 회사든 갈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회사를 상대로 ‘역 갑질’을 하게 되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매우 가슴 아픈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회사는 직원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가꾸어줘야 하고 직원은 회사가 시장에 단단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데, 그저 월급을 받기 위해 나가야 하는 곳이 회사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현실이 말이죠. 이 나라의 청년들이 미래라고 말하지만, 청년들은 당장에 월세가 걱정이고, 아이를 낳을 걱정보다 결혼 비용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상황입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 때문에 못하는 것이 많은 세상에서, 많고 적음의 문제를 떠나 나라에서도 청년들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장래를 보다 밝게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놓입니다.

면접을 통해서 회사는 직원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직원도 회사의 분위기를 잘 알기 힘들어서 잠깐의 수습 기간을 통해 서로 평가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저 역시 3개월이라는 수습을 지내고 현재 6개월이라는 시간을 쌓게 되었습니다. 쉽다고 할 수는 없는 시간이었지만 어느새 6개월이 흘러 잘 적응했고 업무에서도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회사를 무엇보다 잘 다니고 회사에 이바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제도적 장치가 제 마음의 안정을 줬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 “미래설계를 위한 이정표이자 성장 동력”

8년을 넘게 사근 여자 친구와 결혼은 약속했지만 언제 해야 할지 고민하는 시점에,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되는 위킵에 입사한 것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큰 계기가 됐습니다. 결혼식 준비부터 집 장만, 손님들에게 음식 대접하는 것 등등 들어가는 돈이 꽤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2년의 시간 동안 회사에서 경력을 쌓으며 일을 한 뒤에 지원을 받는다는 사실에 마음에 여유가 조금 더 생겼습니다.

현재 위킵은 인천 유일 아기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이 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했지만, 나라에서 지원하는 여러 사업 중 청년들을 위한 사업에도 관심을 두고 공모를 하며 챙겨주기 위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더 바람직한 성장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직을 준비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면접 때 반드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가능한 회사인지 물어보고, 가능하다고 하면 두말하지 않고 다녀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취업이 쉽지 않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좋은 회사, 나라의 지원 사업에 관심을 두고 청년들을 길러 좋은 인재, 좋은 회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곳이라면 분명히 좋은 곳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많은 청년이 취업에 대한 높은 벽을 느끼고 있지만, 그런데도 본인이 원하는 회사로 가는 것은 물론이고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좋은 제도가 있는 회사에 지원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것을 강력히 말하고 싶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변화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청년들에게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해! 공부해야 좋은 미래가 있지! 라는 추상적인 말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기에 안정적인 장래를 설계할 수 있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부문(우수상)

# 경단녀에게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배정빈 ((주)엠제이락)

## “경단녀”가 되기 전의 나와 ‘청년내일채움공제’

제 업무는 현장 검사를 겸하는 선박 도장 품질보증이었는데, 전국 조선소 중 도장 품질 직에 종사하는 여직원은 삼성중공업 1명, 대우중공업 1명에 저를 포함한 단 3명이었습니다. 조선소 내의 여성 비율이 낮기도 했지만, 도장 품질 특유의 최후 공정 때문에 특히 더 높고 위험한 환경이어서 많은 여성 검사원들이 버텨 내질 못하였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24살부터 시작한 품질검사 일은 아파트 몇 채 크기의 대형 선박 위를 누비는 특별함이 있으므로 재밌었고, 1, 2년 만에 능력을 인정받아 특수 선박 프로젝트에 주로 임했으며, 사원으로는 이례적으로 KEY PERSON으로 프로젝트를 이끌어 갔습니다. 응시료만 몇 백만 원 하는 국제 시험을 치기 위해 중국까지 가서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하였습니다.

학창 시절엔 교수님 산하 연구실에서 각종 경진대회와 연구에 참여하며 TRIGON / ANSYS / A.M / CATIA / AUTO CAD 등의 설계프로그램을 접하였습니다. 조선-해양 연구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회인 KTCT 실험유체역학 콘테스트에서 신설 학과로 참여해 전통 있는 서울대, 울산대 등을 제치고 최우수상까지 받고, 취준생이 주로 참여하는 포트폴리오 경진대회에서 대학교 2학년으로서는 유일하게 수상을 하기도 하였고, 학과를 대표해 지역신문에 실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의 이력은 아무 의미 없이, 임신 육아 후에 돌쟁이 아기가 있는, 곧 30대가 되는 평범한 경단녀가 되었습니다.

2010년 조선해양공학과에 입학했을 땐 대한민국이 세계 1위 타이틀을 가진 조선 최대 호황기였고, 대기업과 취업이 연계된 국립대였기에 경남권에서 소위 “제일 높은 학과”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졸업 시기부터 조선 경기 불황이 시작되었고, 취업난 속에서도 운 좋게 졸업과 동시에 취업할 수 있었지만 5년을 넘기지 못하고 모든 중형 조선소들이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그 타이밍에 결혼과 출산을 한 저는 조선소의 무거운 안전장비를 매고 대형 선박 위에서 일하던 모습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평범한 전업주부였습니다. 같이 조선공학을 전공했던 남편도 경력만 단절되지 않았을 뿐이지 단기 프로젝트를 전전해야 하는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경남권의 기반이었던 조선/자동차 산업 위기로 능력 있는 경력자들도 정리 해고되는 상황에서 경력 인정은커녕 신입으로 입사하기도 어려웠고, 그나마 채용공고가 있는 부산은 출퇴근 비용이 50만 원이 넘게 들었으며, 아기가 있으니 기숙사를 들어갈 수도, 직장이 없으니 이사할 대출도 할 수 없는, 무엇을 준비하고 싶어도 거주지조차 정할 수가 없으니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가 2018년이었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제도가 생긴 해였습니다.

<sup>1)</sup>경단녀 : 결혼과 육아 탓으로 퇴사해 직장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이르는 말.

## “آمد았던 미래에 ‘계획’을 세울 기회가 주어지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로 저희 부부는 미래의 계획이 가능해졌습니다. 임신-육아로 1년 이상 무직 상태였던 저는 2년형으로 1,600만 원, 재직 중이었던 남편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5년으로 3,000만 원, 둘이 합쳐 4,600만 원 있으면 은행 대출을 더 해 집을 구할 수 있으니 지역의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5년 뒤에는 아이도 초등학교생이 되는 해였으니 이사 후 정착하기도 딱 적절한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부산의 한 회사에 같이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업과 무관한 곳이었기에 경력 인정 없이 사원으로 입사하였습니다. 2년 동안 300만 원만 적립하면 1,6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연봉 3,000만 원 직장을 3,700만 원 직장처럼 매력적으로 만들어주었기에 가능한 결정이었습니다. 타 지역에 4년이 넘는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니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없었다면 분명 망설였을 테고, 그러는 동안 경력의 단절은 점점 길어지고 재취업이 더 힘들어졌을 수도 있겠조. 재직자 본인은 월 12만 5천 원을 넣고 실제로는 5배가 넘는 월 67만 원가량이 적립되면서도 기업의 부담이 없으니 회사에서도 흔쾌히 가입을 지원을 주었습니다.

##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매년 있는 취업난이지만 오랫동안 대한민국을 지탱한 조선업이 흔들리고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인 전염병이 창궐하는 각종 악재가 겹친 현 상황에서, 이 제도가 저에게만 크게 다가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업으로서도 청년내일채움공제로 청년중소기업을 꺼리는 청년들이 눈을 돌릴 기회를 얻는 것이고,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 더 나은 연봉을 위해 이직하려는 경력직 직원의 이동을 방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느꼈습니다. 그래서 보고 자료를 작성하여 사장님께 1:1 브리핑을 하였고, 현재 우리 회사 모든 신입사원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고, 능력 있는 청년재직자는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엄마이면서도 배정빈 대리가 될 수 있게 한 복권이었습니다. 기회조차 없던 상황에서 선택지가 생겼고, 이미 인정받았던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가 생겼습니다. 새로 취업한 곳은 전공은 아니었지만, 기계 가공 제조업으로 바탕이 비슷했고, 대학교 때 전공한 설계와 조선소에서 쌓은 품질, 생산 경력은 중소기업에서 더 빛을 발할 수 있었습니다. 19년 8월에 입사하여 4개월 만에 대리로 진급하고 충분한 연봉 인상이 있었던 건,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아니라면 시작하기 어려운 곳에서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뿐만 아니라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한 많은 청년이 공제 만기 후에도 현 직장을 유지한다는 기사를 접했는데, 저와 같이 공제기간 2년 안에 직장에서 충분히 인정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낮은 곳에서 시작하기를 망설이는 청년에게 제약 없는 무대를 주고, 높은 급여의 고급인력을 망설였던 기업에 인재의 투자 가치를 알게 해주는 가장 효율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부문(우수상)

# 내일이 없어 보일 때 내일을 선물 받았습니

우선식 (농업회사법인(주) 아드리코)

## “내가 생각하는 중소기업, 그리고 청년내일채움공제”

2018년.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5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스타트업, 해외기업, 대기업, 비영리단체, 공공기관을 두루 경험하며 내 일을 찾기 위해 부단히 애썼지만, 인연이 아님을 매 순간 확인하며 절망하던, 캄캄한 터널 같은 시간을 막 지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던 유명 외국계 기업에서 최종 면접까지 가는 긴 줄다리기 끝에 날아든 불합격 통지, 정신을 차리고 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과연 나는 이곳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을지,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선택지가 과연 몇 개나 있었을까요.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서마저 제 발로 걸어 나왔던 저에게, 남겨진 선택지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생활은 점점 궁핍해져 갔지만 염치없게도 회사를 고르는 기준은 나날이 높아져만 갔습니다. 더는 실패하지 않으리라는 다짐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에게 있어 중소기업이라는 선택지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성에 차지도 않았을 뿐더러 중소기업의 처우와 복지에 관한 부정적인 소문을 익히 들어왔던 터라 강한 편견과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머릿속에 박혀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취업 시장에서 흔히들 말하는 입사 가능한 나이의 마지막 선을 훌쩍 넘어선 지 오래였고, 재직기간은 짧지 않았지만 일정치 않은 커리어는 인사담당자들에게 얼마나 눈엣가시로 작용했을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입사지원서를 수도 없이 썼지만 돌아온 소식은 미안하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도 길고 어려운 청년내일채움공제. 처음에는 공무원이나 교직원에게나 있는 공제부금 같은 제도라고 생각했고, 청년이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의 검색을 통해 중소기업과의 연결고리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반가우면서도 절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중소기업이라니, 이 좋은 제도를 활용하려면 중소기업에 들어가야 한다니. 아, 나는 2년도 못 채우고 실패하겠구나 싶은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중소기업이라 해봐야 볼 보듯 뻔한 거 아니냐는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다가도 정신이 번쩍 들면 더는 물러설 수 없는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손에 들어온 패가 좋지 않은데 게임을 진행하려면 아무 패라도 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호기심 반 절망 반의 심정으로 워크넷에 접속해서 검색창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입력했습니다. 생각보다 기업이 많이 나와서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출퇴근 가능한 곳으로 알아보면 몇 개가 나올지 궁금해서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검색해 봤습니다. 어라?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앞세워서 젊은 인력을 모집하는 기업이 상상 이상으로 많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여기에 뭐가 있구나, 단순히 제도에 기대서 젊은 인력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못된 정책은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도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이 최악이었던지라 색안경은 쉬이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 “중고 취업준비생에서 핵심 인력이 되기까지”

자고 일어나면 하루에도 수십 번은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나에게 물러설 곳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고민과 고민을 거듭하다 집에서 멀지 않은 작은 중소기업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본인들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처음이지만 해당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글귀가 내심 마음에 들었습니다. 지원한 직무는 식자재 배송이었지만 회사에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양해서 꼭 배송직이 아니더라도 내가 잘할 수 있는 직무에 지원할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겠구나 싶은 작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2시간이 넘는 길고 진한 면접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2년 6개월 동안 이 회사에 재직 중입니다. 제 인생 통틀어 한 직장에서 가장 오랫동안 일하는 셈입니다. 면접을 보던 자리에서부터 대표님은 저의 다양한 경력을 인정해주셨고, 회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판단하여 직무를 조정해 주셨습니다. 처음은 식자재 배송직으로 시작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에서 추진하던 온라인 쇼핑몰 사업에 저를 중용했고 1년 6개월에 걸쳐 쇼핑몰 구축을 진행하여 현재는 쇼핑몰의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어떻게 이런 기회를 누릴 수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솔한 좌절을 맛보던 중고 취업준비생 신분에서 이제는 회사의 중요한 임무를 맡아 일하고 있는 핵심 인력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런 묘한 기분이 들 때마다 저는 2018년의 추웠던 겨울을 다시금 떠올리곤 합니다.

제가 2년이 넘게 이 회사에서 잘 적응하고 생활하게 된 비결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 이 회사가 큰 규모의 중견기업이었거나 경직된 사내 문화를 가진 보수적인 조직이었다면 2년이라는 시간을 버티기 불가능했을 겁니다. 지금처럼 창의적이고 유연한 회사 업무가 거의 불가능했을 테니까요. 중소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인 적은 급여의 문제부터 적성과 경력에 맞지 않는 직무로 인한 부적응 문제까지 생각한다면 중소기업 또한 해답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청년내일채움공제 덕분에 저는 작은 규모의 조직에서 누릴 수 있는 장점과 규모가 작아서 받을 수밖에 없는 저임금의 단점을 모두 보완하며 회사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회사에서 저를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라고 소개하면 듣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 직원은 회사의 핵심 인력이구나라고 떠올린다고 합니다. 열악한 중소기업 인력시장에서 청년 인력을 채용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인데다가 장기간 근속할 수 있다는 것은 회사 차원에서 아주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 덕분에 저는 재직하는 동안 핵심 인력으로서 특별한 대우를 받으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 “사회 초년생의 날개가 되어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코로나19로 인해 이전보다 더 어려워진 취업 시장에서 청년들은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취업문은 날이 갈수록 좁아지고, 이 기회를 틈타 일부 악덕 중소기업들은 사회 초년생 청년들에게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곤 합니다. 그런데도 저는 나이 어린 후배들에게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말합니다. 항상 의 처지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회 초년생 신분이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날개를 등에 업은 순간부터는 도리어 우리가 같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업은 우리라는 핵심 인력을 잃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동행할 것이고, 핵심 인력 대우를 받는 우리 청년들은 재직하는 내내 존중받으며 주어진 업무를 해낼 수 있습니다. 더는 물러날 곳이 없다고 느끼던 저에게 취업이라는 날개를 선물해 준 청년내일채움공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 근로자부문(입상)

오늘이라는  
기적

최정인 ((주)스카이뱅크)

## “절박했던 나, 그리고 가장이 되기까지”

누구나 때가 되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제활동을 해내기 위해 어느 정도는 떠밀리듯, 그렇지만 기대와 간절함으로 첫 일자리를 찾아 나서곤 합니다. 사연 없는 사람이 없겠으나 대략 1년 반 전의 저는 조금 더 절박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7년 전 대학교 졸업을 한 학기 남겨두고 저는 결혼했습니다. 흔히 결혼적령기라고 하는 나이보다 일찍 결혼한 이유를 굳이 꼽자면 키보드를 치는 손가락이 오므라들지만, 서로 많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섯 살 연상인 남편은 이미 직장인으로 자리를 잡은 상태였고, 제가 취업하고 안정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서로 마음이 급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 후 만 3년이 될 때까지 저희 부부는 ‘신혼’이라는 단어가 주는 설렘과 미숙한 만큼 아옹다옹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결혼기념일 3주년을 앞둔 어느 날, 제 남편은 ‘급성기 만성골수성백혈병’이라는 혈액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청천벽력이었으나 서울의 어느 대학 병원 응급실에서 닷새 넘게 쪽잠을 자며 입원실 자리가 나기를 기다리다 맞이한 결혼기념일은 당시 저와 남편에게 현실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겨우 입원한 1인실은 1박에 50만 원 가까이 되어서 가격만큼은 특급호텔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평범한 중소기업의 대리였던 남편과 소소하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던 제게 병원비를 감당할 능력은 없었지만, 다행히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와 개인 보험 등 크고 작은 도움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여러 차례의 항암 치료와 16번의 방사선치료, 남편의 친누나에게 받은 조혈모세포 이식이 하나씩 하나씩 무사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식 후 반드시 나타난다는 부작용을 이겨내느라 남편에게는 또다시 회복 기간이 필요했기에 여전히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식 후 첫 1년간 심하게 나타났던 몸 곳곳의 부작용들이 서서히 가라앉고 드디어 남편이 혼자 있을 정도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마침 생활비로 조금씩 쓰던 남편의 퇴직금과 보험금이 어느새 통장에서 초라한 잔액을 드러냈지요.

그제야 돌아보니 당장 직장을 구해야 하는 제게 있는 이력이라고 대학교 졸업장과 남편의 투병 생활 동안 유효 기간이 지난 토익 성적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무직으로서 인턴 경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앞이 깜깜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곳저곳에 이력서를 내던 중이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취직을 준비하고 있던 동생이 집에서 가까운 어느 중소기업의 구인 공고를 공유해주었습니다. 다른 조건보다도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가능하다는 문구가 눈에 들어와 일단 지원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에 대한 정보도 이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그 중소기업에서 1년 반 가까이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 “하루를 견디게 하는 원동력,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실 대부분 중소기업이 그러하듯 우리 회사도 자금 부족에 따른 인력 부족을 어느 정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청년 신입사원들이 중소기업에서 오래 견디지 못하고 빨리 퇴직하게 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입사 후 만 1년이 될 때까지는 3개월에 한 번씩 퇴사를 고민할 정도였습니다. 다만 그 시기를 잘 넘겼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우선, 제 직속 상사인 과장님께서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부터 지금껏 업무에 대해 잘 가르쳐주셨고, 어려운 일들은 대신 도맡아주셨습니다. 때론 인생의 좋은 상담자가 돼주시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회사는 업무 시간에는 화장실 가기도 힘들 만큼 바쁘지만, 본인 업무를 마쳤다면 모두가 6시 정각에 사무실을 박차고 나갑니다.

그런데도 아주 가끔은 품 안에 있는 사직서를 비장하게 꺼내놓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라는 사실은 저에게 있어 힘든 그 하루를 또 견디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쉽지 않지만, 이 회사에서 경험을 쌓아가다 보면 제 경력이 채워질 뿐 아니라 실제로 장래를 준비할 목돈이 마련된다는 것. 그것은 저에게 있어 큰 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이 된 지 얼마 안 된 제가 사회로 다시 나아가야 할 또 다른 가족을 위해 단기간에 준비 자금을 마련해 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 “희망찬 일상, 꿈이 현실이 되기까지”

오래 앉아 있는 것조차 힘들어했던 제 남편은 제가 직장을 다닐 무렵부터 집안일을 조금씩 도와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결코 꿈꾸지 못했을 창업은 저희 부부에게 있어 더욱 현실적인 계획이 된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모든 것이 신기합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제가 서서 설거지하는 남편을 볼 때, 바리스타 실기 시험을 위해 연습한 남편의 라떼 아트를 볼 때, 휴일에 그저 함께 산책할 때도 이 모든 평화롭고 희망찬 일상이 다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에 한없이 감사합니다. 취업이 막막했던 제게 일자리가 생겼고, 열심히 일하는 오늘이 쌓이면 남편과 우리 가정에 밝은 내일이 다가오게 되는 것. 이것이 저에게겐 또 하나의 기적입니다. 노력해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수고가 세상엔 많다는 걸 알게 된 후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닦았던 아픔을 통해 새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제때 좋은 병원, 좋은 의료진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저에게 있어 좋은 제도이자 기회이고, 나아가 저희 가정의 미래가 되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제도가 완벽하지 않기에 앞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더욱 개인과 사회, 기업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부작용은 개선해 나가야 하겠지요.

앞으로도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덕을 볼 수 있었던 저와 제 남편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도움을 주는, 값진 인생을 살아가길 꿈꿉니다. 잠시간의 행복한 상상만이 아니라 실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제 가정에 희망이 되어 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응원합니다.

근로자부문(입상)

# 내게 ‘내일’이란 기회를 주어 고맙습니다

장진주 (유한회사 소미노)

## “맞은 이직이 일상이었던 삶과 청년내일채움공제”

현재 나는 31살의 직장인으로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 오랜 시간 일을 하며 단기간 프로젝트 성 일을 진행하다 보니 급변하는 환경에 곧잘 적응했고 늘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서는 게 익숙한 사람이었다. 조금 더 좋은 환경, 복지, 연봉이 있는 곳이면 주저하고 떠났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잦은 취직과 이직을 했고 결국은 프리랜서로 전향해 몇 년을 지내왔다. 그렇게 누리는 자유와 여유로움도 좋았지만 향후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삶이란 생각에 다시 한번 취직을 결심했고 지금 있는 작은 식품회사 디자이너로 취직을 하게 되었다.

중소기업에 대한 상처도, 안 좋은 기억도 많았던 터라 조심스러웠던 입사였는데 3시간가량 허심탄회하게 진행됐던 인터뷰를 통해 마음에 맞는 회사를 만난 듯해 입사를 결정했다. 계약직으로 일을 하게 되고 3개월이 채 되지 않았을 때이다. 젊은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로 입사 당시 많은 사람이 이 회사에서 이직하고 퇴사를 했다. 이로 인해 대표님과 직원들도 새 직원에 대한 경계, 불안, 염려를 드러냈다. 그렇게 직원들의 잦은 이직과 퇴직에 대한 아픔이 있는 대표님 조심스레 나를 불렀다. 그리고 대표님이 내게 조심스레 청년내일채움공제 이야기를 꺼냈다. 3년이란 시간을 이 작은 회사와 함께할 수 있겠냐는 제안처럼 들렸다. 처음엔 이 제안이 족쇄 같기도 했고 변화무쌍한 삶을 살던 내가, 비교적 시간을 자유롭게 쓰던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밀려왔다. 오랜 시간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검색도 했다. 그리고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리 직원 분들께 설명을 듣고 나서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 “심리적 완충재가 되어 주는 청년을 위한 정책”

사실 나는 적금도 청약도 잘 유지하지 못하던 사람이었다. 많이 벌면 버는 대로, 적게 벌면 그런대로 규모 없는 생활을 했다. 많게는 3~400을 넘게 벌고 적게는 100만 원 후반 언저리를 벌며 한 달에 나가는 생활비와 카드 값, 학자금 대출을 갚아 가며 사는 일반적인 청년이었다. 사실 이런 경제적 상황을 생각하면 결혼, 혹은 내 집 마련은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일이지 않은가. 매달 30만 원을 꾸준히 모아도 지금 사는 지역의 집 한 채도 전세로 얻을 수 없을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지 못할 열매는 쳐다보지 않듯 나는 절대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일들이 어느 샌가 나라의 도움으로, 기업의 도움으로 이뤄갈 수 있겠다는 기대로 변했다.

기미가 보이니 미래에 대한 계획도 되기 시작했다. 그 덕에 교제하던 친구와 결혼을 계획하게 되었고 내 집 마련과 자녀에 대한 계획들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3년 후엔 전세자금으로 빌렸던 은행 대출을 갚고, 또 다른 집으로 이사하고, 결혼 준비 자금을 갚고, 학자금 대출을 전액 상환하는 등의 구체적인 계획들도 세우게 되었다. 프리랜서였다면, 혹은 예전처럼 자주 이직하던 때를 생각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닐까. 한 달 벌어서 한 달을 채우는 그런 삶에 작은 희망을 심겨준 듯하여 감사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진행되면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며 내가 내는 금액뿐 아니라 기업지원금, 나라에서 나오는 지원금들이 합산되며 다달이 쌓여가는 금액을 볼 때면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이 정도의 돈이 모인 게 신기할 때가 있다. 규모 없이 자유롭게 나만을 위해 소비하던 습관들도 조금씩 모으는 재미, 오랜 시간 인내하며 모아가는 재미를 알게 된 것도 같다. 그래서 요즘은 적은 금액이지만 적금을 모으고 최근엔 만기를 맞아 새로운 적금을 다시 시작했다. 마치 벼랑 끝에 내몰린 듯 오

늘 벌어서 내일 사는 삶이 참 많은 요즘 이런 정책을 통해 마음이 한결 여유로워지니 심리적인 안정감도 들었고 자연스럽게 이런 정책을 누리게 해준 나라에 감사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었다.

## “내게 주어진 직무에 대한 긍정적인 책임감, 그리고 업무에 대한 즐거움”

사실 중소기업에는 누군가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을 일일 때가 많다. 공휴일에 쉬지 못하거나 상여금, 경조사비, 여름휴가도 없고 그 흔한 설 명절 선물도 없는 작은 회사. 겨우 있는 작은 복지는 '전자레인지 있음' 정도인 회사들도 많다. 경력직으로 일을 하다 보니 여러 크고 작은 회사를 거치며 각 회사의 복지혜택을 비교할 때 사실 지금 있는 회사의 복지나 연봉이 좋은 편은 아님을 알고 있다.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이직을 위한 포트폴리오 풀더가 배경화면 구석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나 사람인, 워크넷 등에서 쏟아지는 구인·구직 소식을 읽어 내려갔을 것이다.

하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해오며 달라진 나의 첫째 모습은 핸드폰에서 구인·구직 앱이 사라진 것이다. 최근 며칠 새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휴면 계정 처리 메일이 여러 번 날아왔을 정도로 관심이 없어진 상태다. 앞으로 몇 년 이상은 이 회사에 머물러야 한다는 약속 때문인지 구인·구직의 소식을 보며 마음을 졸이거나 시기하지 않게 되었다. 사람이 무언가에 쫓기면 초조해지고 넓은 시야로 살아갈 수 없지 않은가, 마치 무언가에 쫓기지 않는 상태가 된 것만 같아 편안하다. 그리고 이후 받게 되는 정책지원금으로 인해 낮은 연봉에 대한 부담도 조금은 줄게 되었고 물질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니 직무를 대하는 태도도 조금씩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었다. '회사일', '남의 일', '내 영역의 일만 잘하면 될 일'이라는 이기적인 생각에서 '내가 책임져야 할 일', '내가 개선해 볼 수 있는 일', '내가 지켜야 할 자리'로 생각이 바뀌며 조금 더 나은 결과를 위해 공부하고 연구하게 되었고 회사가 잘 되기 위한 아이디어를 곳곳에서 찾게 되었다. 길을 가면서 작은 홍보 전단을 봐도 회사를 위한 아이디어가 됐고 그것이 불편하지 않게 되었다. 나의 직무역량을 높여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기쁨도 알게 되었다. 해외 구매자들을 위한 영어 공부, 내가 알지 못했던 웹 코딩을 위한 html와 컴퓨터 언어를 공부한다든지 기존 프리랜서로 있을 때와는 또 다른 시도를 하게 되었다. 스스로 더욱 발전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1년이 넘는 시간이 지속되다 보니 회사도 다른 부서 사람들도 속수무책으로 나가버린 이전 직원들과 나를 달리 바꾸기 시작했다. 나의 영역과 결정을 존중해 줬고 내가 가진 업무역량에 대해 인정해주었다. 한 기업과 브랜드의 디자이너만이 가진 브랜드에 대한 깊은 고민과 이해를 조금씩 체득하기 시작해 업무에 대한 즐거움도 생겼다. 예전엔 좋은 디자인의 기준이 나의 심미안, 나의 가치관이었다면 지금은 회사의 색깔, 회사의 가치관이 나의 디자인에서 녹아나는 듯하다.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생겼다. 작은 회사다 보니 서로의 일에 관심을 기울였고 불편하지 않은 관심과 보살핌은 도움이 되고 감사가 될 때가 많았다. 작게는 서로 가지고 온 떡 한 조각 과일 한 조각 나눠 먹는 것부터 해서 크게는 결혼을 준비하는 날 위해 업무를 덜어주어 주는 호의도 누리고 있다. 며칠 전 결혼을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대표님이 찾아오셔서 작은 선물을 주고 가시며 이런 애길 하셨다. 내가 회사로 들어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작은 회사가 나아가는 방향이 바뀌었다고. 더 좋은 기업이 되어가는 것 같아 감사하다는 인사였다. 눈물진 목소리로 전해지는 진심으로 울컥하는 감정이 밀려왔다. 언젠가 떠날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붙잡고 이 작은 회사를 유지해왔을 젊은 대표님들의 마음이 느껴져 짠했다. 그리고 마음 한쪽 이런 마음이 들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성장할 수 있는 회사라면, 그리고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서로의 존재에 감사하는 회사라면 3년이 지나고서라도 조금 더 오랜 시간 동안 머물러도 좋겠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우리 회사가 조금 더 잘 되었으면, 내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회사가 조금 더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을 품고 일을 한다. 때론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하여 고군분투하여도 뒤처지거나 기회를 잃어 상심하고 달릴 힘을 잃는 때가 있는데, 내게 일어날 좋은 기회가 주어진 것 같아 감사하다. 앞으로 남은 2년의 세월을 잘 채워나가고 싶다.

회사도 나도 조금 더 멋있어져 있을 미래를 꿈꾼다.

근로자부문(입상)

# 역마살도 끊어낸 청년내일채움공제

최정인 (동래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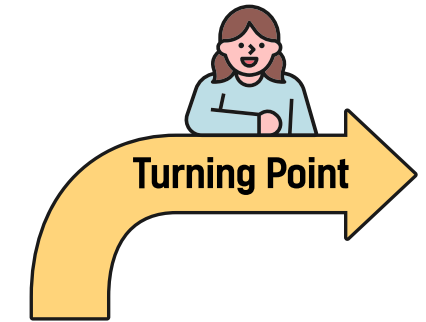
### “500일,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

나는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한 직장 내, 같은 부서에서 약 500일째 근무 중이다. 이것은 나의 3번의 이직 가운데 가장 긴 경력이다. 이직 전, 언제나처럼 취업 운세를 보러 갔던 나에게, 점쟁이는 나의 강력한 역마살로 1년도 못 버틸 거라 단언했지만, 나는 1년을 훌쩍 넘겨 내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으며 심지어 자칭 타칭 일을 '잘' 해내고 있다. 이 모든 공은, 단언컨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정책 덕분이다. 이 정책은, 청년의 업무 적응 및 역량을 증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한 것으로, '자본주의' 시대 맞춤 정책이다. 왜냐하면, 2년 혹은 3년을 근무하면 '물질적' 보상(돈)을 주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는 짧으면 짧을, 하나 1년 버티기도 어려웠던 나에게, 500일은 실로 엄청난 의미이다. 누군가는 코웃음 칠 수 있겠지만, 나에게 새로운 가능성 발견이었다.

어릴 적부터 길을 가다가도 관상에 역마살이 심하게 끼었다는 말을 왕왕 듣던 나이다. 이런 나의 가장 큰 문제점 혹은 약점은 무엇이란 '쉽게 질린다'라는 것이었다. 반복되는 일상 업무, 되풀이되는 출퇴근 길, 심지어 같이 일하는 똑같은 동료들까지... 남들에게는 문제가 아닐 문제들로 인해 '1년을 버티기'가 나에게서는 언제나 도전이었다. 항상 새로운 설렘으로 시작되는 입사 후 약 5개월, 이후에는 '1년 퇴직금'까지만 참아보자며, 버티기 돌입이 일쑤였다. 그러고 나면 퇴직. 혹은 다른 부서로 전근 신청. 이것이 나의 루틴이었다. 근무 시작 후, 대략 9개월부터 사직할 마음으로 이곳저곳 다른 회사 사이트를 돌아보며 들떠있기에 몸과 마음은 그때부터 벌써 분리되어 버린다. 언제나 나의 만트라인 '오래 다니자 혹은 오래 버티자'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늘 패배자의 자세를 답습했다.

### “끈기가 없는 내가 타인이 인정해주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까지”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만기형으로 2년 뒤 1,600만 원이라는 목돈을 타기 위해 2년은 적어도 근무하자고 마음먹고 입사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한 번도 경험이 없던 2년이라는 숫자에 대중으로도 감이 없었다. 그렇기에, 처음 몇 달은 700일을 D-Day로 핸드폰 화면에 디데이를 카운트해가며 설 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행위가 지겨워져 버린 나는, 생각을 고쳐먹었다. 2년을 이전처럼 '버티자'라는 마음으로 다니면, 나의 '2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든 것이었다. 그리고곤 생각했다, “그래, 열심히 일하다 보면 시간은 가 있겠지! 정신없이 일해보자” 그리고는 현재 나는 지금 같은 부서 누구보다도 “쉬어가면서 일해요”, “적당히 일해요”를 가장 많이 듣는다고 자부할 수 있다. 반복되는 일상에서나 스스로 '새로움'을 주고자 했던 일들이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나도 모르게' 좋은 영향을 주었다. 쓰임이 사라진 다른 회사 면접을 준비하던 즉, 쓸



데없이 낭비되던 에너지는 실로 대단했다. 반복되는 업무의 프로세스를 시행착오를 겪으며 변경해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해 간소화하는 일부터, 대부분 남이 꺼리는 '새로운 일', '복잡한 일'은 언제나 자처하였으며 심지어 똑같은 업무공간에 싫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늘 깔끔하고 새로울 수 있도록 정리 정돈을 도맡았다. 타인이 인정 해주는 나를, 나 자신도 매력적으로 느끼게 되면서 자기 평가도 다시 내리게 되었다.

우선 나를 보는 관점도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스스로 끈기가 없는 사람이라고 정의 내린 것에 한 치의 의심도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빠른 실증으로 반복이 지겨워 새로움을 찾아 떠나버리던' 나는 일상 업무를 새롭게 디자인해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 있는 직원이 되었다. 또한, 내가 아주 부지런한 새 임을 발견했다. 지겨웠던 출퇴근길을 변화 주기 위해 일찍 일어나 걸어 다니면서 변화하는 사계절을 온몸으로 느끼며 극복했다. 이것은 업무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여 사무실 환기를 하고 그 전날 일을 한번 훑어보고, 오늘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일을 빠뜨리지 않고 할 수 있게 해주었다. 또한, 이전에는 그렇게나 지겹다고 느껴졌던 직장 동료들은 적지 않은 오랜 시간을 통해 신뢰를 기반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들임을 깨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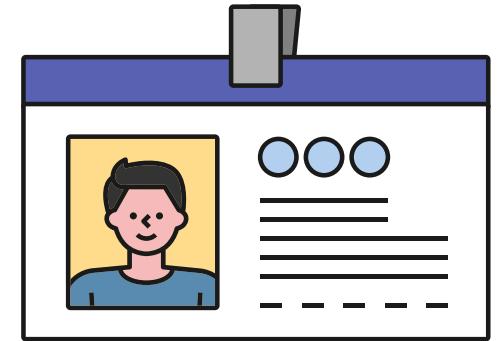
### “인생의 터닝 포인트, 청년내일채움공제”

완전히 새로운 나이다. 정말 긍정적인 나 자신도 영 새롭다. 스스로 언제나 끈기 없음을 불안해하고 부끄러워했던 나이다. 하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계기로 새롭게 겪어본 나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굶은일을 찾아서 하는 성실한 청년이 되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누군가에게는 2년 뒤 통 크게 받는 '퇴직금 혹은 보너스'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물론, 이것만으로도 엄청하지만) 나에게서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일을 막 시작하는 청년들 누구에게나 강력히 권한다. 본인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정책의 대상자라면, 의심 없이 신청하기를. 2년 혹은 3년 뒤, 새로운 '내'가 되어 볼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물론, 1,600만 원 혹은 3,000만 원의 목돈은 그 새로운 당신에게 날개를 달아줄 든든한 자본금이 될 것이다.

근로자부문(입상)

# 청년내일채움공제 더불어 수기 공모전 (부제: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도전하는 삶을 살다)

이봉로 (브로드밴드아이디씨)



### “정규직 전환 동시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작”

비전공으로 시작했던 정보통신업계에서 6개월의 짧은 학원 생활을 끝내고 입사지원서를 대략 60개 정도 넣었지만 나에게 연락 왔던 3개 회사 중 하나였던 브로드밴드아이디씨에 2017년 9월 29일 입사 후 3개월의 인턴 생활이 지난 후 2019년 12월 29일 정규직 전환과 동시에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시작했습니다. 처음 중소기업취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적립된 스탬프를 확인하였을 때는 과연 내가 24개의 스탬프를 다 찍는 날이 올까?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고 하나씩 스탬프를 채울 때 마다 나의 기술력도 조금씩 쌓아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얼른 회사 적응부터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 “항상 공부해야 하는 직업 시스템 엔지니어”

어느덧 입사한 지 5개월이 지났고, 회사 업무는 적응되어 가고 있지만, 빠르게 변하는 정보통신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며,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많은 고민 했던 시기였습니다. 업무를 하면 할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업무가 늘어나면서 일단 이 회사에 완벽히 적응하려면 회사 시스템에 관한 공부가 필요했고 DNS 서버, WEB 서버, MRTG 서버(모니터링), 메일 서버 등등 차근차근 회사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들을 직접 구축해보고 설명서도 만들어보고 했습니다.

### “회사 생활하며, 자기 계발도 열심히!”

회사에 1년쯤 지나니 내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들이 점점 많아지고, 회사에서의 나의 부분이 생긴 거 같아 좋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도 생기고 일 처리 한 후 성취감도 느끼던 시기였던 거 같습니다. 그러면서 회사에서의 역할과 나의 경력 향상을 위해 자격증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의 결과물은 정보처리기사, 리눅스 마스터 1급 취득! 두 자격증 모두 한 번에 취득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생애 첫 전공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어디 가서 무슨 일 하세요? 하면 “저 IT 직종에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막연히 개인 공부하는 것보다는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공부하는 게 저한테 더 잘 맞는 거 같아 이번 연도 목표로 네트워크 관리사 2급을 취득하는 게 목표입니다.

### “브로드밴드아이디씨 이봉로 대리입니다”

제 자신도 성장하는 동시에 회사도 규모가 더 커지고 자연스럽게 사람들도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일반 사원에서 대리로 승진을 해버리고 명함까지 만들었는데 처음으로 회사 내에 직급이란 것을 받아보니 회사에 대한 책임감과 애사심도 더 생긴 것 같아 일을 더 열심히 했던 거 같습니다.

### “얼마 남지 않은 만기일”

브로드밴드아이디씨에서 2년이란 시간이 엄청나게 빨리 지나버리고, 어느덧 공제 만기 신청을 하는 날이 왔습니다. 1,600만 원 내 생애 이런 큰돈을 통장에 있던 적이 없던지라 계획 없이 쓰는 것보다는 일단 받고 나서 부모님 조금 드리고 나중을 위해 저금을 했습니다. 가끔 힘들 때마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스탬프와 적립금을 쌓이는 돈을 보면서 열심히 했던 날이 있었는데 어느덧 스탬프를 다 찍는 날이 왔습니다….

### “만기 후에도 도전은 계속 된다”

처음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시작했을 때는 2년을 내가 다 채우고 만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덧 현실에서는 만기금은 받은 지 5개월이 지났고 지금 나는 이 회사에서 더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네이버 클라우드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네이버 클라우드와 파트너십 계약을 한 후 네이버 클라우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기술지원팀에 속한 저는 네이버 클라우드 자격증인 NCA, NCP, NCE 늘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점점 발전함과 동시에 회사 또한 고객들이 많아지고 같이 성장하는 거 같아 내년이 더 기대됩니다.

## 근로자부문(입상)

## 나를 한 발짝 더 성장하게 해준 청년내일채움공제

윤소희 (심리상담연구소행복나무)

### “나로 살고 싶습니다”

29살, 남들은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며 가정을 꾸려야 한다고 말하는 시기에 저는 진로를 바꾸어 상담심리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강도 높은 업무와 야근이 일상인 회사 생활의 반복 가운데 잃어가고 있던 나를 다시 찾고 싶었고, 다른 사람을 도우며 나를 알아가는 일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미래에 가정을 꾸려 아이들과 가족들을 위해 시간을 내어 가족을 보살필 수 있는 엄마가 되고 싶었으며, 나만의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길러 60대가 되어서도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퇴사 후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서울 내 일반대학원 심리학과에 입학하였고, 열심히 공부하여 2년 6개월 만에 논문을 쓰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상담사라는 직업은 근무 환경과 임금 수준이 열악한 직종에 속해있었습니다. 요구되는 학력, 실습 경험, 교육 과정에 드는 비용 수준이 높지만, 그에 비해 졸업 이후에도 변변한 직장을 갖기가 어려우며 대부분 무급 인턴 혹은 비정규직 시간제로 일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나마 운이 좋아 좋은 근무 조건을 가진 큰 상담 센터에 행정 업무와 상담사 일을 겸직하는 직무로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33살인 제가 월 180~190 만원 수준의 임금으로는 독립, 결혼, 미래를 생각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부의 좋은 제도인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알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대상자로 선발될 수 있었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애사심, 희망, 성장 기회를 얻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저에게 안정적인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직장내 업무,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먼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준비하면서 많은 서류가 필요했는데 그 서류에는 기업 서류도 포함 되어있었습니다. 상담심리 센터 특성상,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센터 국장님께서 직접 이 서류들을 준비해 주셔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꼭 신청하고 싶었지만 복잡한 행정절차와 많은 준비 서류들 때문에 주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걱정과는 달리 국장님께서 먼저 흔쾌히 이 제도에 대해 안내해주시며 신청해보자고 해주셨고, 모든 서류를 신경 써서 준비해주셨습니다. 말단 직원 한 사람을 위해 귀찮고 복잡한 업무와 서류들까지 적극적으로 챙겨주셨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를 위해 센터에서 힘써주시는 기분이 들어 너무 감사했고, 애사심, 근무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이전보다 더 센터를 아끼고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으며, 진심으로 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두 번째로, 실질적인 임금 수준이 개선되는 효과로 안정적인 장래 설계가 가능해졌습니다. 본 제도의 선발로 인해 6년간 교제한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로변경을 결정한 이후, 직업적, 금전적 이유로 결혼을 미루고 있었는데, 청년내일채움공제 덕분에 결혼을 더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2만 5천 원을 2년간 꾸준히 적립하면 16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마련된다는 것은 저희가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데 큰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결혼 예산 책정과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올해 당장은 신혼여행을 못 가게 되었지만, 더 열심히 노력해서 내년에는 신혼여행도 가고, 장기적으로는 둘 다 열심히 노력해서 적게나마 내 집을 마련해보자는 꿈도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족한 예산으로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결혼이라는 제도가 이제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가고 싶다는 설렘으로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로, 직장 내 역량 강화에 힘쓰며 장기적인 경력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선발로 인해 근무 기간이 최소 2년, 혹은 그 이상 일을 하게 될 직장이라는 생각을 더 진지하게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들을 장기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센터 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 무료 상담, 전화 상담 관련 행정 업무를 맡고 있으며, 상담사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일차적으로 소규모로 진행해 볼 수 있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큰 강의로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담사로서도 현재 일하는 상담센터에서 장기 상담이 가능한 상담사가 된 셈입니다. 좋은 상담사들이 많은 곳으로 소문난 인정받은 센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센터를 위해서도 제가 스스로 교육 프로그램이나 기타 세미나를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배우고 성장할 기회들을 많이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기업과 청년의 안정적인 미래 설계를 응원합니다”

이처럼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에 선발된 것은 저에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임금 수준의 향상과 삶의 안정성을 높여주었고, 이로 인해 결혼, 상담사로서의 경력을 생각하는 데도 장기적인 계획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마련해준 국가와 선발에 힘써준 회사에 큰 고마움을 느낍니다. 많은 기업과 청년들이 본 사업에 참여하여 자신이 속한 분야의 경력도 쌓고 안정적인 미래 설계가 가능해지길 바랍니다.

근로자부문(입상)

# ‘청년내일채움공제’로 찾아온 긍정적인 삶의 변화들

김태운 (나노텍세라믹스)



### “나를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돈”

언제나 그렇듯이, 돈이 항상 문제였다.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이 회사도 결국 돈을 벌기 위해 재직 중이다. 하지만 내가 이 23명 인원의 작은 회사에 애착을 두고 남고 싶어 하는 것은 결코 돈 때문이 아니다. 사람들이 좋아서, 작지만 배려가 넘치기에,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를 선택한 것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덕이 7할이라고 생각한다.

어머니는 친척에게도, 친구에게도 사기를 당했다. 주위 믿을 사람 하나 없이 돈도 아버지도 없는 가정을 책임지는 것은 60대 중반을 넘어서 어머니와 대학생인 나에게겐 힘든 일이었다. 대학교 4학년의 봄날, 어머니의 짐이 나에게로 넘어왔다. 어머니께서 쓰러지신 것이다. 뇌경색이었다. 어머니는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지만 3년 전부터 약을 드시지 않았다. 아마도 돈 때문이었을 것이다. 어머니는 왼쪽 반신이 마비되어 병원에 입원하셨고, 나는 얼떨결에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다. 생활비는 기존에 해오던 수확강사 아르바이트로 해결했다. 하지만 취업난 시대에 다가오는 졸업과 취업의 문턱을 넘는 것은 생활비처럼 간단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다. 자격증이 필요했다. 나는 자격증을 따고 학점을 끌어올리기 위해 밤새 공부를 했고, 전액 장학금도 받았다. 겨울학기 현장실습도 신청했다. 원래 졸업 직전에는 현장실습을 할 수 없는 것이 규정이었으나 학과사무실에 부탁한 끝에 신청된 것이다. 합격 발표가 나자, 돈과 자격증, 2개월분의 점심이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생각되어 나는 뿔 듯이 기뻐다.

###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선택지를 고르다”

출근길은 매우 멀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야 겨우 도착할 수 있었다. 회사 사람들은 나를 잘 챙겨주었고 그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일했고 잘 적응했다. 그렇게 2달이 지나 현장실습이 끝날 때쯤, 사장님께서 정식 입사제의를 해오셨다. 성실하게 일했던 것과 학교 후배라는 점이 마음에 드셨던 모양이었다. 입사제의를 하면서, 중소기업 입사의 장점인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설명해 주었다. 일단은 생각해보겠다고 말씀드렸다. 나는 많이 고민했다. 23명 인원의 작은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겁이 났다. 취업난이라고는 해도, 내가 다녔던 부산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면 못해도 1~2년 취업 준비 후 다들 알만한 회사에 들어가곤 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었다. 당장 어머니께서 병원에 입원해 계셨다. 아르바이트 덕에 생활비 걱정은 없어도 병원비는 내 발목을 잡고 있었다. 순간 회사에서 알려준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떠올랐다. 마

침내 나는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다. 그렇게 나는 지금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이 회사를 선택한 것이 너무나도 옳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취업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전 세계에 전염병이 돌아 경제와 취업률이 얼어붙는 것을 누가 예상이라도 했을까. 뿐만이 아니다. 회사 사람들은 입사 이래 나에게 나쁜 말 한마디 한 적이 없다. 배려심 넘치는 사람들 덕분에 일이 힘들어도 즐거운 회사생활을 하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어서 좋은 사람들이 있는 중소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없었더라면 나 또한 이 멋진 회사에 없었을지도 모른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입사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준 기폭제이자 부싯돌이었다.

###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밑거름이 되어준 청년내일채움공제”

국가에 대한 내 생각이 바뀌었다. 그동안 내가 봐왔던 국가나 시의 정책들은 효과가 미미하거나 보여주기 식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나라가 내게 해준 것은 2년 동안 군대로 보내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했던 나였다. 하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의 생활 및 사고방식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중소기업의 불안정한 근로환경을 피해 대기업, 공기업만이 선택지라고 생각하던 청년들에게 중소기업이라는 선택지를 안겨 주었다. 절대 중소기업은 가지 않을 거라고 하던 친한 친구는 지금 중소기업 구매팀에서 일하고 있다. 후에 ‘청년내일채움공제’만기일이 되어 받는 돈으로 결혼할 것이라고 한다. 또 다른 친한 친구는 1년 전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 공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친구는 대기업 인턴을 했음에도 중소기업에 입사해서 영업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유혹이 컸다고 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의 근속연수를 높이는 것에도 영향을 주었다. 입사를 하면 못난 사람들로 인해 특하면 직장을 그만두기 일쑤였던 친구는 ‘청년내일채움공제’만기를 채우기 위해 ‘3년만 버티자’는 각오로 일하고 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중소기업은 불안정하고 월급이 작다고, 맞는 말이다. 월급이 들어와도 생활비, 월세, 저축, 지금은 퇴원하신 어머니의 용돈 등으로 빠듯하다. 그렇지만 매달 쌓여가는 공제금액을 보면 흐뭇해진다. 이것이 장차 내 미래 삶의 밑거름이 될 것을 알기에 오늘도, 내일도 나는 열심히 일한다.

## 근로자부문(입상)

## 내 삶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준 청년내일채움공제

홍찬영 (무한테크링크프로컴)

### “국가 제도 덕분에 힘들었던 어린시절을 견뎌했습니다”

12살 어느 날,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하시게 되었고, 두 분 다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볼 수 없었고, 할아버지, 할머니, 동생, 저 이렇게 4식구가 살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술을 드시면 할머니를 폭행하는 나쁜 버릇이 있었지만 제가 태어난 뒤로 술을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 고생을 많이 하셔서 몸이 좋지 않으셨고, 동생은 정신 지체 1급인 장애를 안고 있어서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집을 나간 뒤 할아버지는 술을 다시 드시기 시작하셨고 제가 학원을 간 사이 할머니를 폭행하셔서 큰 병원에서 대수술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었습니다. 그 후 할아버지는 알코올중독병원으로, 할머니는 요양원으로 가게 되셨고, 동생은 정신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목사님이신 고모부 집안에서 중학교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10대의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는 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성장하게 되었고, 특히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의 도움을 참 많이 받아왔습니다. 충분히 벗어나갈 수 있었던 청소년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움의 손길 그리고 희생과 지원이 저를 굳게 잡아주었습니다. 덕분에 열심히 공부하여서 국립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에 들어가 기술을 닦을 수 있었고, 화신 사이버대학교에서 졸업하기까지 국가장학금을 받으면서 학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 “좋은 사람들이 모인 좋은 회사에서 좋은 제도를 만났습니다”

10대와 20대 시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늘 품었던 마음이 '나도 크면 꼭 내가 받았던 도움처럼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였습니다. 성인이 되어 혼자 일어서기를 반복하면서 그런 사람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29살이 되면서 시작했었던 사업이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빛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과 만나는 게 많이 힘들어지게 되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삶에 대한 고민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모아놓은 돈은 커녕 빚을 갚아야 하는데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결혼은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겼었습니다. 그러다 사직동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직장을 구하던 중 우연히 공고를 보고 면접을 보러 찾았던 곳이 지금 일하고 있는 “무한 테크 링크 프로컴”이라는 회사였습니다. 5인 미만의 작은 중소기업이었지만, 회사를 경영한 지 10년이 넘는 든든한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에서 하는 일은 정품프린터에 무한공급기를 설치해 무한링크 프린트를 제작해 판매하고 HP 프린터, CANON 프린터 등 다양한 프린터의 고장 난 부분을 수리, 사후관리 해주는 업체였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들었지만 당장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일자리는 쉽게 구해지지 않아서 면접에 합격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면접을 보게 되었고, 다행히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에 다녔던 것이 좋은 점수가 되어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접하는 일이라 힘들겠지 생각했는데 막상 옆에서 가르쳐주시는 과장님과 편안하게 대해주시는 사장님과 사모님, 직장 동료들이 있어서 업무에 적응을 쉽게 할 수 있었고, 지금은 업무에 더 집중하여서 기술을 연마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회사에 적응하며 일을 하며 생활하던 중에 '부산 청년플랫폼'에 기재된 정책을 보게 되었고,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에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여러 정책 중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 신청하는 기간이어서 신청을 하게 되었고, 조건이 맞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덕분에 안정적으로 업무에 집중 할 수 있었습니다”

“무한테크 링크 프로컴”이라는 회사는 10년간 성장해온 프린트회사지만 청년들이 1년, 2년, 많으면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퇴사하게 되면서 늘 새로 들어오는 직원에게 다시 일을 가르쳐야 하고, 그러다가 적응할 만하면 나가게 되는 일이 반복되니 실제로 업무의 일선에서 있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과장님과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회사는 2년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원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저는 공제를 통해 2년 후 자립할 수 있는 목적자금을 가질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흔쾌히 수락을 해주셨고 함께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공제에 들면서 과장님께서 어떤 부분이 중요신지 여쭙보니 '기업은 약간의 지원을 국가에서 받을 수 있어서 회사의 반응도 좋았고 무엇보다 2년간은 청년 직장인이 무책임하게 회사를 퇴사하지 않고 꾸준히 일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줘서 사람을 구하지 않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그만큼 사원과의 관계에 대한 안정감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씀해주셔서 공제에 가입한 저도 뿌듯했습니다.

### “더 아름다운 미래를 꿈 꿉니다”

이제 일을 시작한 지 7개월이 넘었고, 열심히 빛도 갠지면서 미래에 무엇을 할지 고민하며 준비하고 계획한 대로 하나씩 하나씩 작게나마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빛은 거의 다 갠아가고 있고 삶에 안정감과 균형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공제를 들면서 한 달에 12만5천 원을 적립하면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2년 후에는 1,6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서 2년 후에는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겠다는 든든함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개인적으로는 이 회사를 통해 공제에 들 수 있어서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이 생겼고, 일을 더 성실하고 부지런히 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과장님과 사장님과의 관계도 더 친밀해졌고, 부러워하는 직장 동료들에게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 줘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이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준 기업이기 때문에 더 애착이 가는 것 같고, '앞으로 5년 동안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서 일을 해야지.' 하는 다짐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 주기의 계획을 세우면서 경제적인 부분과 삶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짜게 되었고, 분명한 목적도 생기게 되어서 직장 외의 개인적인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적립해서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제금과 앞으로 5년 동안 개인적으로 모은 돈으로 5년 후 30대 중반의 삶을 더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대학 때, 사회복지학과 한국어 교육학을 전공했고 다문화 사회 전문가 자격을 취득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베트남어를 배우면서 유튜브와 사업에 관련된 부분을 열심히 준비해 나가고 있고, 베트남 국제결혼을 통해 결혼에 대한 소망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단순히 그저 청년들에게 돈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기목적자금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이로 인해 미래를 준비하는데 심적인 부분만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도 도움을 주는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번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들게 되면서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생각보다 적지 않은 청년들이 이러한 좋은 제도를 알지 못하고 있고, 알아도 할 의욕이 없거나,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 마음이 없어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험을 통해 많은 주변에 친구들이나 청년들에게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좋은 제도가 있음을 알리고, 저와 같이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짙은 어둠이 가득한 터널 같은 제 삶 속에서 주저앉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줄기 빛이 되어준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러한 정책을 만들어준 정부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글로 마음을 다 전할 수 없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해 업무를 보시는 공직자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고, 일선에서 청년들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 근로자부문(입상)

## 회색빛 정답

## (부제 : 청년이 내일을 채우는 방법)

최시은 ((주)유씨웨어)

## “취준생에게 푸른 하늘도 회색빛이다”

작년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다. 잿빛 도시, 지나치는 봉어빵 냄새조차 마음에 무겁게 내려앉던 시절. 아마도 그 추위는 단순히 영하의 온도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나는 몇 년째 길을 찾지 못하고 방향하던 취준생이었다. 젊은 치기로 분별없이 원하는 모든 것에 도전하고 공부했던 시간. 남은 건 30에 가까운 나이와 부재에 가까운 이력이었다. 누구보다 노력하고 치열하게 살았노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그것은 치졸한 변명일 뿐. 세상에 언제나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 더욱 치열한 사람들로 즐비했다. 정확히 말하면 나의 적성과 그릇보다 욕심이 너무 컸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멀리 왔다. 공부나 취업 준비를 오래 해본 사람은 알 것이다. 겨울보다 시린 이 허탈함을. 하지만 오래 지체하면 이 겨울만 더 길어질 뿐이었다. 나는 정신을 차려야 했다. 나에게 맞는 일은 무엇일까, 흥미나 호기심보다 현실이 이끄는 길을 어디일까 물색했다. 애써 외면하고 있던 나의 장점에 대해 집중하고, 눈부시게도 아름다운 하늘이 아닌 처절할 정도로 회색빛을 띤 앞을 응시했다.

내 눈에 들어왔던 건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 IT 회사였다. 규모는 작지만, 인재를 대우하고 독창적인 기술력으로 미래가 기대되는 회사. 나는 그 회사의 영업마케팅부서에 지원했고, 운이 좋게도 면접이 잡혔다. 때는 당일이 되었고, 난 열심히 준비한 대로 자신을 소개하고 답변했다. 긴장한 탓인지 열정이 지나쳤던 탓인지 나는 말 하는 도중 나는 갑자기 숨이 차오름을 느끼고 혈떡였다. 당황스러웠지만 이런 거로 절망할 수는 없었다. 나는 상황을 설명하고 시간을 조금 요청 후, 숨을 고른 다음 다시 말을 이어갔다. 장애물은 있었지만, 후회 없이 원하는 바를 다 표현한 날이었다. 운이 좋게도, 느지막해 지푸라기를 잡는 사람의 진심을 회사가 알아준 건지 난 당일 합격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그렇게 나의 두 번째 삶이 시작되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이때까지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그저 가능한 회사라면 꼭 지원해야 하는 높은 이자의 적금 같은 것 이라고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회사에 입사하고 자세한 설명을 들었을 땐 난 눈이 뜨인 기분이었다. 고용노동부에서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인데, 나의 경우 2년만 근속하면 총 1600만 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었다. 사회 초년생에게 1600만 원의 금액은 큰 액수가 아닌가! 어차피 다른 길은 없다고 작정한 나에게, 뿌리 내린 회사에서 근속만 하면 큰 액수를 보상으로 준다니...나의 희망을 조금씩 다시 쌓을 양분이 될 만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내 삶의 선물”

그렇게 시작된 회사생활. 어려움과 뿌듯함이 어지럽게 교차하는 그 생활 중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주는 것은 단순 목돈이 아니었다.

첫 번째는 오래 있을 회사라는 생각이 드니 회사와 유대감이 생겼다. 엄밀히 말하면 따뜻한 종류의 감정보단 소속감에 조

금 더 가까울 것이다. 하지만 소속감이 생기니 정착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문과생으로서 너무 어려웠던 IT 용어들과 제품의 Back단 구성들을 외우려고 노력하고, 내가 정착할 회사에 대해 빠삭해지고 싶어 펜과 종이를 온종일 들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질문해댔다. 몇 달 안가 나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주임 직위를 받고, 제품을 앞단에서 영업하는 사람이 되었다. 처음으로 회사로부터 인정을 받는 순간이었다!

두 번째,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준 또 다른 선물은 전문성에 대한 욕심이었다. 배움은 끝이 없다지만 배우기 위한 장벽은 항상 존재하지 않는가! 시간과 물질적인 장벽이 그중 하나인데 나에게겐 물질적인 장벽이 더 컸다. 외국어에 관심이 많은 나는 이미 있는 토익 점수보단 회화 능력을 길러 해외영업에 가담하고 싶었다. 서면보단 자신이 없던 회화를 위해 전문 전화 영어 학원에 등록했다. 가장 잦은 빈도수로 가장 긴 수업을 선택했다. 가격은 그만큼 커졌지만, 나의 연봉에 1300만 원(순수 목돈)을 더하면 배움의 값이 쓰라리지 않은 연봉이 되기 때문이었다. 현재 수개월, 매일의 빠짐없는 전화영어 덕에 완벽하진 않지만, 외국에서 온 전화 회의가 두렵지 않다.

세 번째는, 고생 끝의 희망, 보고 달릴 희망이다. 낮부끄러운 그 단어지만 참으로 그렇다. 머지않아 조금만 더 기다리면 커다란 선물을 받을 것이라 기대감. 어디를 가거나 회사생활을 지루하고 고될 것이다. 하지만 2년 후에 주어지는 보상을 보고 달리면 많이 외롭진 않은 것 같다. 그리고 그 희망 덕분에인지 나에게겐 새 목표도 생겼다. 현재 나는 기획일, 마케팅 일, 영업일까지 다발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분명 힘들지만 그만큼 회사와 같이 성장해 나가는 나를 보며, 언젠가 이 작은 곳을 이끄는 다재다능한 지도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지금 작다는 것은 커질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 그것을 이루는 빛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 사람은 나에게 있어 충분히 목표 가치가 있는 사람일 것이다.

## “높이 보는 것이 아닌 멀리 보는 법을 배우다”

지금 돌이켜보면, 꼭 저 멀리 금색 삼각형 꼭대기에서 빛나는 사람이 되지 않아도 된다. 밝은 프리즘이 아니라 회색빛의 도시 중 일부가 되어도 좋다. 멀리서 보면 회색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우리는 각자 나름의 스펙트럼을 가진 빛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나의 목표, 그리고 열정만 죽지 않는다면 이 빛은 절대 꺼지지 않는다. 그러니 앞으로만 달리면 된다. 언젠가 원하는 것에 도달하기 마련이리라. 간신히 찾은 이 길 위에서 더는 흔들리지 않고 직선으로 달릴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자리에서 웃을 수 있도록 허락해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근로자부문(입상)

# 미래가 든든하게 채워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임지연 ((주)지엔엠)

“꿈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작하기”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만기를 6개월 정도 앞둔 직장인입니다. 저는 친구를 통해 이 제도를 알게 되었는데요. 친구는 벌써 만기가 되었고 통장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숫자가 찍혔다며 상기된 목소리로 통화했던 기억이 나네요. 정부의 좋은 제도 덕분에 2년 동안 자산을 형성할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시간을 통해 느낀 바를 몇 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꿈꿨던 2020년도의 모습은 돈도 많이 벌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멋진 커리어우먼이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 후 제 전공을 살려 취업을 하기가 어려웠고 또 원하는 직장을 갖기까지 퇴사를 반복하는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돈을 모으기 쉽지 않았고 점점 나이만 드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직을 통해 현 회사에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이미 취업이 되기 전에 알고 있던 제도였기 때문에 입사 후 대표님께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회사에서도 아직 이 제도를 지원해본 적이 없던 상황이라 서로 많이 알아보아야 했지만 감사하게도 대표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입사 후 이른 시일 안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둬야겠다는 생각 대신 지혜로운 해결방안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5명이 근무하는 소기업이고 통 번역, 그리고 관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통역과 번역을 의뢰하는 고객들을 상대하는 일이 많고, 더불어 통역사, 번역사가 사무실에 상주해 있는 것이 아니라 프리랜서 분들과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인력을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필수였습니다. 누구나 공감하시겠지만,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상황과 스트레스에 따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요. 저 역시 하루에도 홈페이지에 몇 번이고 들어가서 그 포도 알 같은 동그라미가 언제 채워지나 싶은 적도 있고 중도해지에 대한 글을 읽은 적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장점들이 제 마음을 잡아주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채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회사에도 지원금을 주는 제도이지만 무엇보다 저로서 어떤 은행 적금보다도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기 위해 업무와 직장 동료와의 관계 등 계속 재직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다 저를 위한 제도이고 중간에 해지한다고 해도 다 제 손해였기 때문에 스스로 통제가 되더라고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하다 보니 직장 생활 자체가 안정적으로 변했

고 힘들어도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보다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지,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는지 방안을 찾아보게 되는 등 좋은 효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업무역량과 돈.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각자 이 제도에 가입한 연령대가 다르겠지만 저는 내일모레면 서른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인데요. 결혼 등 금전적인 부분을 많이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죠. 이 제도는 가입한 시기를 토대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만기를 가늠할 수 있어서 쓰이는 용도 역시 계획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특히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요즘은 하루하루 재밌게 지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산을 형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회사 일에 적응하며 만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만기 후에도 계속 재직할 수 있는 여러 환경이 되게 하여주는 것 같아요. 청년에게 아주 필요한 제도를 통해 자산, 직장, 업무역량 등 다양한 부분에서 큰 힘이 되는 제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모습을 보고 이번에 새로 취업한 제 동생도 가입하고자 회사 담당자님과 대화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청년에게 꿈과 힘이 되어주는 좋은 제도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자부문(입상)

# 나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

이재원 ((주)에이플러스알에프)

## “우여곡절 끝에 입사한 첫 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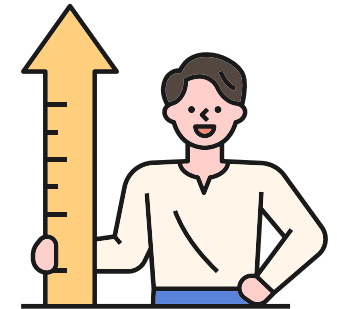
군 복무를 마치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던 '16년 겨울, 가족의 건강문제로 급격히 기울어진 가계로 인해 군 복무 시 모았던 자금 대부분을 사용해 어머니와 함께 작은 음식점을 열게 되었습니다. 잘 될 거라는 희망만 품고 뛰어들었던 자영업은 수익은 있었지만, 4인 가구의 생활비를 충당하고, 구성원 각각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고,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저는 다시 취업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일자리를 알아보고, 준비하던 중, “Operator”(오퍼레이터: 기계류의 조작에 종사하는 사람) 라는 직업을 접하게 되고, 그에 매력을 느꼈던 저는 '17년 겨울, CNC복합자동선반 기술직을 목표로 부산에서 여행용 가방 하나의 짐과 월세 보증금만을 가지고 인천으로 올라와, ‘(주)에이플러스알에프’라는 통신제조업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 “회사가 적극적으로 권해준 청년내일채움공제”

첫 입사 후, 곧바로 복합기 조작 및 제품생산(이하 세팅)을 배우면서 순탄하게 기술직이 되어 안정적인 급여를 받으며 생활하고, 저축하며 사회적 기틀을 이루어 갈 것이라는 꿈과 같은 기대와는 달리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이 전혀 없었던 저는 Assistant(조수, 보조원)로 현장의 청결관리, 생산된 제품의 후처리 담당으로만 업무시간 대부분을 보냈으며, 그로 인해 업무 시간 내 복합기를 마주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또한, 급여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부담스러운 월세와 빠듯한 생활비는 입사 전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동떨어진 생활을 이어가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조급함은 스스로 선택에 대한 고민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고민이 해소되기 시작한 것은 당시 회사에서 청년 재직자에게 적극적으로 권유, 지원한 ‘청년내일채움공제’였습니다. 이를 통해 ‘만기가 되는’ 20년 2월에는 오퍼레이터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장기적인 미래를 위한 금전적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는 목표를 정하게 되었고, 3개월의 인턴생활 이후 '18년 2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만기금액 수령 후 삶이 안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목표가 정해진 후에는 기존에 가졌던 조급함보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독려로, 업무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달리하는 것을 시작으로 능력향상을 위해 퇴근 후, 복합기 설명서 정독을 통한 기초지식 습득, 한국직업능력훈련소(시흥)에서의 CNC선반교육을 수료하면서 해당 실무의 기초를 배우고, 부서 내 부장님을 비롯한 오퍼레이터분들의 많은 배려와 도움으로 세팅 방법 및 기술 등을 보고, 듣고, 배우며 현장의 실무를 익혀나갔습니다.



'18년 가을, 드디어 처음으로 세팅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회사의 판매용 제품도 아니었고 그리 대단할 것 없는 매우 간단한 PIN의 일종이었지만, 조금이나마 목표에 다가가고 있다는 것이 처음으로 피부로 와 닿았던 순간이었기에 그때의 짜릿함과 만족감은 글이나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순간은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혀 지칠 때 저를 다시 일으켜주는 원동력이 되고 합니다. 이후 중소기업연수원에서 실행하는 ‘정밀측정교육’ 수료와 일·학습병행제의 일환인 ‘학습 조직화 활동’에서 세팅의 방법을 발표, 질의응답식의 활동을 통하여, 기초를 더욱 다지고, 다른 팀원과 대화를 통해 조금 더 넓은 시각을 길렀으며, 기술적으로는 여러 건의 세팅을 맡으면서 고민하고, 답을 찾으며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19년에는 양산제품 85건 표본 제품 55건으로 총 140건의 세팅을 해내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에는 같은 시기 입사하였던 동료 사원보다 조금 더 먼저 진급의 기쁨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 2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만기로 마친 뒤, 현재의 저는 2년 전, 제가 세웠던 목표를 이루고, 회사 내 훌륭한 동료분들께 여전히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하고, 제가 처음 걸었던 길을 걷는 동료 사원들에게는 저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있으며, 현 시점에 대한 안주가 아닌 또 다른 목표를 향해 발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처음 입사를 위해 부산에서 월세 보증금만을 가지고 인천으로 왔을 때 그리고, 급여를 받은 날에도 고정지출로 인해 빠듯한 한 달의 생활비 계산하고, 걱정하던, 그때와는 다르게 공제 만기금액을 수령 후 기초자산형성과 조금 더 안정된 수입으로 더욱 나은 미래 설계와 질 높은 생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있어서의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표현하고자 한다면, 목표설정에 대한 동기부여이며, 업무와 사람에 지쳐 조금은 쉬어가고 싶을 때 다시 일으켜주는 버팀목이자, 다음 목표를 향하게 하는 이정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좋은 기회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회사 내 대표님을 비롯한 많은 분께 감사드리면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워져서 고맙습니다.

# 03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안내

- 고용복지플러스센터란?
- 전국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연락처



## 고용복지플러스센터란?

###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 <복지>, <서민금융> 서비스를 한 곳에서 One-step으로 지원하는 협업 모델

### 주요 업무



#### 취업지원

-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 구인업체 인력지원 서비스 제공



#### 고용보험관리

- 근로자 실업급여
- 능력개발비용
- 사업주 고용유지
- 교육훈련 비용 지원 관리

# 전국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연락처



순번	기관명	연락처	순번	기관명	연락처
1	서울강남고용복지+센터	02-3468-4794	26	대구달성고용복지+센터	053-605-9510
2	서울고용복지+센터	02-2004-7301	27	대구고용복지+센터	053-667-6000
3	서초고용센터	02-580-4900	28	경산고용복지+센터	053-667-6800
4	서울동부고용복지+센터	02-2142-8924	29	대구강북고용복지+센터	053-606-8000
5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	02-2077-6000	30	대구동부고용복지+센터	053-667-6900
6	서울강서고용복지+센터	02-2063-6700	31	포항고용복지+센터	054-280-3000
7	서울남부고용복지+센터	02-2639-2300	32	경주고용복지+센터	054-778-2500
8	서울북부고용복지센터	02-2171-1700	33	구미고용복지+센터	054-440-3300
9	서울관악고용복지+센터	02-3282-9200	34	김천고용복지+센터	054-429-8900
10	부산고용복지+센터	051-860-1919	35	영주고용복지+센터	054-639-1122
11	부산사하고용복지+센터	051-520-4900	36	문경고용복지+센터	054-559-8200
12	부산동부고용복지+센터	051-760-7100	37	안동고용복지+센터	054-851-8061
13	마산고용복지+센터	055-259-1500	38	인천고용복지+센터	032-460-4701
14	창원고용복지+센터	055-239-0900	39	인천북부고용복지+센터	032-540-5641
15	울산고용복지+센터	052-228-1919	40	인천서부고용복지+센터	032-540-2001
16	김해고용복지+센터	055-330-6400	41	수원고용복지+센터	031-231-7864
17	밀양고용복지+센터	055-350-2800	42	용인고용복지+센터	031-289-2210
18	양산고용복지+센터	055-379-2400	43	화성고용복지+센터	031-290-0800
19	진주고용복지+센터	055-753-9090	44	김포고용복지+센터	031-999-0900
20	하동고용복지+센터	055-880-5544	45	부천고용복지+센터	032-320-8900
21	거창고용복지+센터	055-949-6589	46	광명고용복지+센터	02-2680-1500
22	통영고용복지+센터	055-650-1800	47	의왕고용복지+센터	031-463-7460
23	거제고용복지+센터	055-730-1919	48	안양고용복지+센터	031-463-0700
24	대구서부고용복지+센터	053-605-6500	49	시흥고용복지+센터	031-496-1900
25	칠곡고용복지+센터	054-970-1919	50	안산고용복지+센터	031-412-6600

순번	기관명	연락처	순번	기관명	연락처
51	의정부고용복지+센터	031-828-0900	76	남원고용복지+센터	063-630-3900
52	구리고용복지+센터	031-560-5800	77	김제고용복지+센터	063-540-8400
53	동두천고용복지+센터	031-860-1700	78	익산고용복지+센터	063-840-6500
54	남양주고용복지+센터	031-560-1919	79	군산고용복지+센터	063-450-0600
55	양주고용복지+센터	031-849-2300	80	부안고용복지+센터	063-580-0501
56	이천고용복지+센터	031-644-3820	81	목포고용복지+센터	061-280-0500
57	성남고용복지+센터	031-739-3177	82	해남고용복지+센터	061-530-2900
58	하남고용복지+센터	031-730-7000	83	순천고용복지+센터	061-720-9114
59	경기광주고용복지+센터	031-799-2760	84	광양고용복지+센터	061-798-1900
60	평택고용복지+센터	031-646-1205	85	여수고용복지+센터	061-650-0155
61	안성고용복지+센터	031-686-1705	86	제주고용복지+센터	064-759-2450
62	오산고용복지+센터	031-8024-9805	87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과 서귀포지소	064-710-4490
63	고양고용복지+센터	031-920-3937	88	논산고용복지+센터	041-731-8600
64	파주고용복지+센터	031-860-0401	89	대전고용복지+센터	042-480-6000
65	춘천고용복지+센터	033-250-1900	90	공주고용복지+센터	041-851-8501
66	삼척고용복지+센터	033-570-1900	91	세종고용복지+센터	044-865-3219
67	태백고용복지+센터	033-552-8605	92	청주고용복지+센터	043-230-6700
68	강릉고용복지+센터	033-610-1919	93	옥천고용복지+센터	043-730-4100
69	속초고용복지+센터	033-630-1919	94	제천고용복지+센터	043-640-9310
70	원주고용복지+센터	033-769-0900	95	충주고용복지+센터	043-850-4000
71	영월고용복지+센터	033-371-6260	96	음성고용복지+센터	043-880-8600
72	광주고용복지+센터	062-609-8500	97	천안고용복지+센터	041-620-7400
73	광주광산복지+센터	062-960-3200	98	아산고용복지+센터	041-570-5500
74	정읍고용복지+센터	063-530-7500	99	보령고용복지+센터	041-930-6200
75	전주고용복지+센터	063-270-9100	100	서산고용복지+센터	041-661-5600

# 청년과 기업의 든든한 내일을 함께합니다

<2020 청년내일채움공제 더불어 수기 공모전> 수상작

발행처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발행일 : 2020년 9월

홈페이지 : [www.work.go.kr/youngtomorrow](http://www.work.go.kr/youngtomorrow)